

여
교
수
의
은
밀
한
매
력

각본_감독 / 이 하

강남구 논현동 30-6 (135-010)

016-400-7393 / 542-0686 / 031-457-6335

<FAX> 542-1643 / 031-451-5209

choonchun@orgio.net

인물 소개

(조)은숙 - (33세. 여)

(現) 심천 디자인 대학 염색과 교수. 심천 환경단체 '푸른심천21' 회원.

사회적 지위와 미모를 겸비한 매력덩어리 여교수. 환경운동가. 프리섹스 주의자.

20년전 중1때, 날나리로 유명했다. 그 당시 같은 반이었던 양아치 석규의 친구이자, 석규의 친형인 같은학교 3학년 짱, 석호의 섹스파트너였던 화려한 과거.

석규, 석호와 더불어 사고를 치고 고향을 떠난다. 그로부터 20년 후. 그녀는 번듯한 염색과 교수가 되어있다.

환경단체에서 활동하며, 많은 남성들의 인기를 독차지한다. 뒤늦게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김PD)을 만나지만, 날나리 시절 친구인 석규의 등장으로 늘 조마조마하다. 그녀의 해피엔드를 기대해보자!!

(박)석규 - (33세. 남)

(現) 인기 만화가. 심천 산업대학 만화창작과 초빙교수.

20년전 은숙과 같은 반이었던 유명했던 양아치. 역시 사고 후 고향을 떠나지만, 그림에 소질이 있던 그는 20년만에 인기 만화가가 되었다. 심천 산업대학에 새로 신설된 만화창작과에 초빙교수로 임용되면서 심천에 내려온다.

우연한 기회에 심천환경단체인 '푸른심천21' 에서 발간하는 '환경 만화교과서' 의 만화를 담당하게 되면서 은숙과 재회한다.

그 역시 반갑지 않은 재회. 다시는 마주치고 싶지 않은 기억과의 맞짱.

유선생 - (33세. 남)

(現) 심천 덕천초등학교 교사. 심천환경단체 '푸른심천21' 회원.

은숙을 열렬히 짝사랑하는 유부남. 지나친 애정공세와 싸이코틱한 성격으로 부담스러운 존재다.

처음 석규를 보았을 때부터 어렵것이 그의 얼굴을 기억해낸다. 20년 전, 석규와 은숙의 중학교 동창이었던 것. 그러나 같은 동창이었던 은숙은 전혀 기억하지 못한채 오히려 그녀의 포로가 된다.

줄 듯 말 듯 하다가 결국 자신을 멀리하는 은숙. 그런 은숙에게 새 남자가 생긴게 분명하다고 믿는 유선생. 그가 지목한 은숙의 새 남자는 바로 석규다.

질투심에 불타 석규의 과거를 캔다.

김 PD - 33세. 남

(現) SBC 심천방송국 PD '내고향 환경지킴이' 담당 연출

은숙과 사랑에 빠지는 유부남.

극 초반, 카리스마가 있는 매력남이었으나 점점 '마마보이' 라는게 여지없이 드러난다.

명 희 - 23세. 여

(現) 심천 디자인 대학 연색과 1학년. 은숙의 제자. 심천환경단체 '푸른심천21' 의 신입회원.

젊고 예쁜 외모로 은숙에게 미움받는 여대생. 그녀의 느낌은 '싱싱' 그 자체..
환경단체에 알바생으로 들어와 석규에게 반한다.

착하고 순수하지만 살짝 내숭이기도 하다. 어쩔거나 사랑스러운 폰수덩어리.

석 호 - (35세. 남)

(現) 석규의 친형. 카 오디오 사기단 일원

석규의 친형이자 석규, 은숙의 중학교 2년 선배. 당시, 학교를 주름잡던 짱이자 은숙의 섹스파트너 이후, 18살에 결혼을 해 지금은 지를 꼭 닮은 아들 용희와 산다.
여전히 강패기질을 못버리고 사기를 쳐서 먹고 산다.

< 그 외 >

안교수 - (44세. 남)

(現) 심천산업대 환경공학과 교수. '푸른심천21' 리더. 가끔 은숙과 그렇고 그런 관계.

문교수 - (31세. 남)

(現) 심천 동아대학교 국문과 강사. '푸른심천21' 회원. 역시, 가끔 은숙과 그렇고 그런 관계.

김PD 와이프 - (31세. 여)

(現) 김PD의 와이프. SBC 심천방송국 성우. 목소리 죽인다. 남편과 은숙의 관계를 눈치챈다.

주 흥 - (33세. 남)

(現) 심천 남성초등학교 교사. 유선생의 중, 고등학교 동창. 친구인 유선생에게 석규, 은숙, 석호에 관한 기억을 제공한다.

용 희 - (17세. 남)

(現) 석호의 아들이자 석규의 조카. 지 아버지를 썩 빼닮아 가출을 밥먹듯이 하는 양아치다.

중 두 - (16세. 남) - 20년전. 석호의 딸마니. 은숙 때문에 석규와 싸우다 낭떠러지로 추락사한다.

조연출 - (30세. 남) - SBC 심천방송국 조연출

양아치 - (36세. 남) - 카 오디오 사기단 리더. 석호와 동업

‘빨간마후라’ 의 주인공들… 20년이 지나 다시 만나다 !

석 호 / “ 니네 둘이 싸워서 이긴 사람. 한 번 박게 해줄게 ”

1986년 청주. 남녀공학의 한 중학교. 박석호, 석규 형제는 각각 3학년과 1학년생이다.
형, 석호는 학교를 주름잡는 주먹이자 생양아치. 동생, 석규 역시 형만 믿고 설치는 둘도 없는 양아치다.

또 한명! 석규의 같은반 여자, 1학년 대표 날나리 조은숙.
그녀는 바로, 3학년 석호의 애인이자 섹스파트너다.

공인된 석호의 애인, 은숙. 그러나 그녀를 둘러싼 질투와 전투는 다른 곳에서 시작된다.
바로, 동생 석규와 석호의 톨마니인 종두(3학년)가 그들.

교미를 위한 목숨을 건 사투. 그러나..
철없는 시절, 수컷들의 전투는 종두의 추락사로 어이없게 끝이 난다.

종두의 죽음으로 석호, 석규 형제와 은숙은 학교와 고향을 떠난다.
사람은 떠나고, 과거는 그자리에 묻힌다.

유선생 / “저도 식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같이 한다는게 중요하죠 “

2004년 심천. 심천 디자인 대학 염색과 교수. ‘조 은 숙’

그녀는 교수와 병행하여 심천환경단체 ‘푸른심천21’의 회원으로 활발히 활동한다. 미모의 프리섹스주의 여교수, 은숙. 매력덩어리인 그녀는 짐작대로 남자 회원들간의 초절정 인기스타!!

어느누구도 그녀의 과거를 짐작 조차 할 수 없다.

사회적 지위와 미모를 갖춘 그녀에게 또 한명의 찌드기가 달라붙는데..
이 남자! 유선생!! 장난이 아니다.

김부장 / “ 이번에 교수님 되셨다며? 축하합니다 ”

2004년 서울. 인기 만화가 박필.
그의 본명은 '박 석 규' 다. 연재만화 '컨닝왕 고돌이' 가 그의 작품.

독자들 사이에선 제법 알려진 그는 새로 신설된 심천 산업대학의 만화창작과 교수로 초빙된다.
낯선 도시, 심천에 등지를 튼 석규. 그는 그곳에서 우연히 '환경 만화교과서' 의 만화를 그리게 되는 데...

그 만화교과서를 만든다는 곳이, 하필이면.. 은숙이 몸담고 있는 '푸른심천21' 이다.

생각조차 하기 싫은 과거는 단단한 기억이 되고, 기억은 칼이 되어 그를 맴돈다.

유선생 / “ 근데.. 그 박선생.. 아는 사람 같애. 옛날에 본 얼굴이야 ”

드디어 '푸른심천21' 에서 다시 만난 석규와 은숙. 그러나 서로 알아보지 못한다.

SBC 심천방송국 김PD와 사랑을 가꾸는 은숙.
여자 회원, 명희에게 끌리는 석규.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연대전선에서 로맨스를 만드느라 바쁘다.

그러던 어느날.. 두 사람은 운명적으로 서로를 알아보게 되고...
팽팽한 긴장감과 불안감 속에 지낸다.
끝끝내 모른체 하는 두사람.

한편, 유선생은 기어코 기억속에서 석규를 꼬집어 내기 시작하는데...

와이프 / “ 당신이 혹시 그사람을 갖게 된다면, 그건 내가 줄수있는 가장 가혹한 형벌이야 ”

은숙은 찰거머리 유선생의 구애 공세에도 불구하고, 김PD와의 결혼을 결심한다. 우여곡절 끝에 김PD의 와이프와 담판을 벌이는 은숙.

한편, 은숙의 의도적인 냉랭함에 앙심을 품은 유선생은 엉뚱하게도 은숙과 석규의 관계를 의심한다.
바로 은숙의 새 남자가 석규이며, 그것 때문에 은숙이 자기를 멀리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것.
질투심에 불타는 유선생.. 급기야 병적으로 석규의 과거에 매달린다.

그런 노력이 가상했던 것일까... 석규의 과거는 조금씩 베일을 벗는다. 다만..
결정적인 증거가 없을 뿐..

유선생 / “가져라... 니가 갖던지 니 형이 갖던지.. 둘이 돌려서 쳐먹던지.. ”

석규 어머니의 장례식장 (의정부). 문상차 모두 모인 ‘푸른심천21’ 회원들.

그곳에서 유선생은 애타게 찾던 결정적 증거를 포착한다.
바로, 석규의 형, 석호와 은숙의 재회 장면을 목격한 것!

마침내 20년 전의 석규와 석호, 그리고 은숙의 비밀을 조합해 내는 유선생.

장례식이 끝난뒤, 다시 만난 세사람.
유선생은 두 사람의 과거를 들먹이며, 은숙의 사랑을 강요한다. 그러나 과거를 부인하는 두사람.
분노한 유선생은 두 사람의 과거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차를 타고 사라진다.

눈 앞이 캄캄한 은숙과 석규. 자포자기 상태로 멀리 사라져가는 유선생의 차를 바라보는데.. 순간!
사거리 오른쪽에서 튀어나오는 육중한 덤프트럭. 무지막지하게 튕겨져 나가는 유선생의 차.

순식간에 벌어진 사고를 고스란히 목격한 두사람. 그 자리에 얼어붙는다.

명 희 / “우리 유선생님을 위해 기도해요 ”

유선생의 장례식장. 또 한번의 장례식에 모인 사람들. 침통한 분위기다.
‘이 무슨 운명의 장난이란 말인가..’

은숙과 석규는 장례식장을 나와 약속이나 한 듯이 은숙의 아파트로 향한다.

아파트 거실. 싸구려 국산 양주. 그리고 둘만의 어색한 건배 - 그것은 축제의 세레모니다!
‘과거는 영원히 무덤속으로 가라... 족쇄를 풀고 새로 태어나리라..’

이윽고, 축하파티가 본격적으로 펼쳐지려는 순간. 난데없이 초인종이 울린다.
방문객은 다름아닌 김PD와 명희다. 서로 얼굴을 모르는 두사람은 각자 은숙과 석규를 찾아왔다가 동시에 엘리베이터를 타게 된것.

어정쩡하게 거실에 모여앉은 네사람. 떠도는 시선들. 썰렁함..

그러기를 한 참. 술잔이 몇번 돌고 분위기 조금씩 나아지는데..
그때! 난데없는 명희의 긴급제안. ‘우리 유선생님을 위해 기도해요!’

손에 손을 맞잡은 네사람. 심각하고, 숭고하면서도 어딘가 좀 모자란듯한 예배 분위기..
그 위로 명희의 진지한 기도가 방안에 가득찬다.

시나리오

역외수의 인민학 맥력

S#1

1-1

아침. 방파제 위. 부서지는 파도.
40여명의 수녀들, 두세줄로 열을 맞춰 기념촬영을 하고있다. 새까만 수녀복이 이른아침 모노톤의 방파제와 어울려 묘한 느낌을 준다.
한발 늦은 수녀 한명이 뒤늦게 사진 찍는 무리쪽으로 뛰어간다. 어리고 통통하다. 수녀답지 않게 터프하게 뛰는 모습이 언발란스하지만 재밌다.

'어디나 저런것들이 꼭 한명씩은 있구만.. 쫓쫓쫓' 하는 표정으로 무심히 바라보는 여자. 은숙이다.

이어지는 은숙의 뒷모습. 자신의 쥐색 볼보 승용차 옆에 서서, 바다를 보고있다.
지적인 안경에 세련된 루피스 차림. 바닷바람으로 몸에 착 달라붙은게 얼핏 보아도 근사한 몸매다.
새파란 바다. 강한 바람과 더불어 꽤 분위기있다.

저쪽에서 「SBC 심천방송」이라고 적힌 봉고차가 온다.
이윽고 봉고차 도착하면. 문 열리는 소리. 사람들 내리는 발자국 소리 들리지만 은숙은 뒤돌아보지 않는다 (고상, 도도한..)

그 중 한명, 은숙에게 다가오며 (프레임 인)

조연출 / 안녕하세요. 조은숙 교수님이시죠?

제가 전화드렸던 조연출입니다. 김장렬 이라고 합니다.

은 숙 / 예.. (목례만)

조연출 / 오후에 강의 있다고 하셔서... 너무 일찍 일어나셨죠?

은 숙 / (대답없이 한참 쳐다보다가, 분위기있게) 별로 좋은 꿈 아니었어요. 괜찮습니다.

--;; 빨쫘. 이때 김PD 등장(프레임 인)한다. 말쑥한 양복 차림에 조연출보다 젊고 번듯한 얼굴이다.

조연출 / 그리고, 여기.. 김영호 PD입니다.

김 PD / 안녕하세요. 담당PD 김영호입니다.

은 숙 / 조은숙입니다.

어색하게 인사하고는, 관심없다는 듯 다시 바다쪽으로 시선을 돌리는 은숙.
빨쫘한 김PD.

김 PD / 보트 아직 안왔나?

조연출 / 출발 했답니다.

1-2

고무보트를 실은 봉고차가 와있다. 지역 UDT 대원들, 일사분란하게 보트를 꺼내 입수준비를 하고있다.

은숙은 여전히 바다를 바라보며 서 있다. 손에는 (커피인 듯한) 종이컵.
저만치에 있는 김PD와 조연출.
(마찬가지로) 종이컵을 홀짝이며, 은숙쪽을 바라보고 있다.

김 PD / 죽이지 않아요?

조연출 / 죽이는데요?

김 PD / 하~ 교수라구요?

조연출 / 네. 심천 디자인대학이요. 의상학관가 염색관가 라던데?
김 PD / 염색과? 그런과도 있나? 아니. 염색하는 여자가 무슨 환경운동을..

그때 김PD. 놀라며

김 PD / 어?

조연출. 김PD의 시선을 따라가면. 은숙이 방파제를 따라 걷고 있다. 그런데..
이런... 다리를 살짝 저는 장애인이다

김 PD / 다리까지 저니까 진짜 더 죽이네...

S#2

2-1

파도를 가르며 달리는 고무보트 2대. 각각 UDT대원 1명씩과 스태프. 은숙이 나눠타고 있다.
바다 저끝에 선박중인 해경 경비함정과 오일펜스 보인다. 기름유출 사고가 있었던 듯.

마구 훔날리는 은숙의 머릿결. 그 옆에 김PD 앉아있다.
은숙의 분위기에 압도당한 듯한 김PD. 말없는 사람들..

2-2

해경 경비함정 갑판위. 은숙과 리포트 하고있는 김PD.
함정 주변에서 기름 방제 작업중인 해양경찰도 몇몇 보이지만 대충 수습이 된 듯 차분한 분위기다.
은숙, 진지하게 멘트한다. 가끔 손가락으로 어딘가를 가리키기도 하고. 눈에 익숙한 리포트 방송이다.
자세한 멘트는 바닷바람에 묻혀 들리지 않는다.

S#3

시간경과. 김PD. 인터뷰를 마친 듯 어느새 방파제에 앉아있다. 김PD는 스타일러스 펜으로 PDA를 작동하고 있다. 어디선가 불쑥 나타난 은숙.

은 숙 / 전자수첩?

김 PD / (?) 아.. 피디에입니다.

은 숙 / ... (건성으로 끄덕끄덕)

김 PD / 아직 안가셨어요?

은 숙 / 리포터세요?

김 PD / 예? (병천 표정)

은 숙 / 잘 하시던데요

김 PD / 아니요. 저. 담당피답니다.

은 숙 / 어머.

김 PD / (일어나며) 아까 인사드렸었는데.. 저.. '내고장 환경지킴이' 만들고 있는 김영호 피답니다.

은 숙 / (사뭇 정중하게 손을 내민다) 조은숙 교수예요. 피디라서 피디에일 쓰나?

김 PD / 네?...

은 숙 / (갑자기 '푹' 하고 웃음을 터뜨리며, 푼수처럼) 은네 저사람이 더 피디같다

은숙의 시선을 따라가면 조연출이 보트타고 방파제 쪽으로 들어오고 있다. 조끼. 모자. 턱수염 등...
그야말로 영락없는 PD의 모습.
베타테이프를 흔들며 뭐라고 고래고래 소리지르지만 들릴리 만무하다.

S#4

4-1

여관방. 빠구리 뛰는 두사람.
둘 다 보통이 아니다. 포르노를 방불케 하는 정사. 그러다가

은 숙 / (통증을 느낀 듯) 아!
김 PD / 왜요?
은 숙 / 잠깐! 잠깐만!
김 PD / (헐떡이며) 왜요? 예?
은 숙 / 다리.. 다리요..
김 PD / 다리? 다리 왜?
은 숙 / 아이. 내 다리요.. 누르지마요. 아파요
김 PD / (은숙의 다리를 잠시 쳐다보다가) 어.. 미안.. (하고는... 갑자기 삼입!!)
은 숙 / (쾌감에 놀라며) 아!

4-2

정적. 거울에 붙어있는 메모.
김PD. 잠시 멍하니 보다가 소리내어 읽는다. 잠긴 목소리.

“환경을 소중하게 생각하게끔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알찬 프로그램, 유익한 프로그램을 만드시는 PD
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조 은 숙”

멍한 김PD. 잠시후

화장대 위의 안경을 발견하는 김PD. 은숙이 놓고간 안경이다.
안경을 써보는 김PD. 창문을 '확' 열자 아직 해가 있는 저녁 무렵이다. 안경을 쓴 채 밖을 내다보는
김PD의 눈에 볼보로 다가가는 은숙 보인다. 역시 다리를 약간 저는.

김 PD / (혼잣말) 뭐야? 이거...

안경을 썼다 내렸다 하며 보는 김PD. 보안경인 듯.

김 PD / 멋이야?

시동을 건, 은숙의 차. 출발직전 차창밖으로 깡통이랑 비닐봉지등이 버려진다.
서서히 모텔을 빠져나가면
익살 톤의 음악과 함께 타이틀 떴다 사라진다.

“ 여교수의 은밀한 매력 ”

S#5

그날 저녁. 환경단체 사무실.
문열고 들어오는 은숙. 안교수, 문교수, 유선생 일제히 쳐다본다.

안교수 / 어이구.. 잘 하고 오셨습니까?
은 숙 / (뿔. 별거 아니라는듯한 미소)
안교수 / 어? 텔레비전 나온다고 안경도 벗으셨네?
은 숙 / 네? (안경이 없음을 그쳐서야 알아챈다. 바로 표정관리)
문교수 / 우와~ 근데.. 눈 별루 안나쁘셨나?
은 숙 / 에이.. 렌즈 했죠~
안교수 / 이야.. 신경 많이 쓰셨네. 신경 많이 쓰셨어
은 숙 / 당연하죠. 텔레비 스탠데...

S#6

6-1

같은날 밤. 사무실 근처. 호프집. 은숙만 빼고는 다들 술이 꽤 되었다.

안교수 / 개들은 지들이 좋아서 벗고 다닌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그 지점이 바로 인간의 착각인 거라.. 그게 다 위에서 조정하는 거거든.. ‘근사한 몸을 주었으니 남을 위해 봉사해라!’ 자유의지가 아니란거지..
문교수 / 머리 좋은 사람은 머리로 봉사하고, 몸매 좋은 사람은 몸매로 봉사해라?
안교수 / 그렇지.. 나같이 정력 좋은 사람은 정력으로 봉사하고..
은 숙 / 으휴~
안교수 / 아니. 조교수님. 우리 지금 종교얘기 하고 있는거예요.. 신과 인간의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결론은.. 우리 조교수님, 계속 안경 벗어야 된다는 거고.. 그 인물이 괜히 좋은게 아니거든. 다 우리같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주신 거예요. 조 위에 계신 낭반이..
문교수 / (러시아어로 오바해서) “-----”
꽃이여! 너의 향기는 진정 너의 것이 아니요, 벌과 나비를 위한 것이다..
은 숙 / 치! 안경은 내가 벗었는데 왜들 좋아서 난리예요?
안교수 / 아. 원래. 여자가 벗으면 남자가 좋은거지

다같이 “하하하”

6-2

남자 화장실. 유선생과 문교수, 나란히 오줌누고 있다.
꽤 긴시간 아무 얘기 없다. 쭈쭈쭈만 계속

6-3

남자 둘이 화장실을 간 틈. 은숙과 안교수 들 뿐이다

은 숙 / 뭘. 찜 보는 것 처럼 오바예요? (화장실 간 일행들을 살피며)
안교수 / 뭘요?
은 숙 / 나 안경 벗은거 찜봐요? 그럼?
안교수 / 나 찜 보는데
은 숙 / 뭘. 찜봐요?

안교수 / 잠깐... 아니야. 참 봐.
은 숙 / 언제. 내가 안경쓰고 해요?
안교수 / 어?

함께 실소. 묘한 분위기의 두사람.

S#7

술자리가 끝나고 집에 가는 길. 운전하면서 전화하는 은숙. 상대방의 음성은 스피커폰을 통해 들린다. 상대방 목소리의 주인은 안교수다.

목소리 / 조교수! 우리끼리 한잔 더 합시다 (취한 목소리다)
은 숙 / 안돼요. 오늘은.. 다른 사람들은요?
목소리 / 됐어요. 다
은 숙 / 빨리 끝났네..
목소리 / 어디예요?
은 숙 / 가고 있어요. 지금.
목소리 / 휴~ (술취한 한숨)
은 숙 / 또, 왜요~? (달래듯)
목소리 / 왜. 책임도 못 질 거면서 사람을 자극합니까?
은 숙 / 네?
목소리 / 휴~
은 숙 / 뭘.. 자극을 해요. 무슨 말이에요? 네?
목소리 / “내가 언제 안경 쓰고 하는거 봤어요?” 이거 먼저 꼬신거 아닙니까. 네?
은 숙 / ... (똥!)
목소리 / 휴~ (또 한숨)
은 숙 / 어머? 차는 어떡하고 걸어가요?

은숙의 시선을 따라가면, 저 앞에서 안교수, 전화 받으면서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다.

은 숙 / 어깨 좀 펴고 걸어요. 여자 꼬시는 남자가 그제 뭐예요?

뒤돌아보는 안교수. 은숙의 차를 확인하고는 반갑게 손 흔든다. 기대에 들떠 기다리는 안교수. 그러나.. 은숙의 차, 에누리없이 그냥 지나쳐 가버린다. 밤길 끝으로 멀어져가는 차.. 꽤 폼나 보인다.

은 숙 / (안교수의 수화기 너머로. 약올리듯) 안녕~

S#8

8-1

야외. 심천 하천.
푸른심천 21에서 주최하는 '제15차 대청소의 날' 행사가 진행중이다. 꽤 많고 다양한 참가자들이 저마다 집게와 쓰레기 봉투를 들고 하천에 널린 쓰레기를 줍고있다.
앞장선 기수들. 나부끼는 '푸른심천21' 깃발들

선두에 선 문교수는 계속 비디오 카메라를 찍고 있다.

문교수의 혼잣말

문교수 / 어떻게 청소하는 사람보다 깃발 든 사람이 더 많아

8-2

시간경과. 청소가 끝난뒤. 하천 둔치 어느곳. 쓰레기 봉투들이 모아져 있다.
그 위로 은숙의 목소리

은 숙 / 유재경! 유재경 안왔어?
김성욱!

맙소사! 출석을 부르고 있는 은숙.
미니스커트 차림의 김성욱 학생 '네' 하고 대답하며 자기 쓰레기 봉투를 들고 나온다.

은 숙 / 너는 그게 청소하러 온 복장이니?

성 욱 / ...

은 숙 / 오정연! 오정연!

정희성! 정희성 안왔어? 오늘 분명히 출석케크 한다고 했는데..

너들같이 염색하고, 옷 만드는 사람들은 더 이런데 나와야돼.

옷만 이쁘게 만들어서 입고 다니면 뭐하나? 그게 자연하고 다 어울려야 이쁜거지.

저기 봐봐! 백그라운드에서 딱 받쳐주니까 명희! 너. 그 옷도 봐줄만한거야.

그게 뭐.. 옷이 이뻐서 그런줄 아니?

오늘 출석. 중간고사로 대처한다.

와! 하며 좋아하는 학생들 십여명. 그 중 무안해하는 명희. 눈에 띄게 이쁘다.

S#9

9-1

호프집. 은숙과 안교수, 유선생이 뒷풀이 술자리를 벌이고있다. 행사가 잘 마무리 된듯 유쾌한 분위기.
'달랑달랑' 출입문 열리는 소리와 함께 문교수가 들어온다. 은숙은 손을 들어 자리를 알린다.
그런데 문교수의 뒤를 이어 들어오는 여자 셋. 다름아닌 명희를 포함한 은숙의 제자들이다.

은 숙 / ??

문교수 / 캠프파이어 끝나고, 그냥 간다잖아요

안선생 / 아휴~ 그냥 가시면 안돼지. 고생을 얼마나 했는데. 교수님 잘 못 만나서..

다같이 "하하호호"

은 숙 / 그래.. 잘 왔다. 캠프파이어는 잘 끝났어요? (의도적으로 화제를 바꾸려는듯이)

문교수 / 그럼요. 다들 좋아서 신났죠.. 여기. 명희씨는.. 명희씨 맞죠? (네)

장작 날르느라고 이쁜 팔뚝 다 까지고.. 어휴~ 오늘 진짜 고생했어요.

사람들. 모두 “어디요? 괜찮아요?” 하면서 호들갑. 이때

은 숙 / (명희의 팔을 끌어당기며, 오바해서) 어디 봐봐! 에이그.. 조금씩 하지. 순진해 빠져서...
유선생 / 저.. 우리 이쁜 숙녀분들도 왔는데 한잔씩들 하시죠!

모두들 잔을 들고 째! “수고하셨습니다~~”

9-2

은숙. 화장실에서 나오는데 테이블의 유쾌한 웃음소리와 대화 들린다. 단연 명희가 주목받고 있다.

안교수 / 야! 참 이쁘시네.. 다들.. 참 이쁘셔..
문교수 / 아이고.. 그만 하세요.. 얼굴들을 못드시잖아요..
안교수 / 아니 정말로.. 참 깨끗하셔..
유선생 / 이런거는 성추행 아닌가.. (다들 ‘하하하’)
안교수 / 앵? 성추행이라뇨?.. 성 예찬이지... 여성성의 아름다움에 대한.. 예찬.
그러네 잡아가면, 그건 무식한거지.. (또한번 ‘하하하’)
문교수 / 에이.. 안교수님은 그냥 젊은 여자가 좋으신거 아니예요?
안교수 / (명희를 보며) 이게 바로 성추행인거예요.. 안그래요? 명희씨?

다함께 “갈갈갈” 유쾌한 웃음이 터진다.
그 광경을 보고있던 은숙은 웬일인지 기분이 좀 상한 듯하다. 밝지 않은 표정.
자리를 빼앗겼다 생각하는 것일까?

S#10

10-1

은숙의 차 안. 뒷풀이가 끝나고 돌아가려는 중이다. 명희와 제자 하나를 태워주는 은숙.
조금 썰렁한 분위기

제자 1 / 교수님! 괜찮으세요?

은 숙 / 어?.. 왜?..

아~ 괜찮아. 맥주 한잔인데. 뭘..

제자 1 / 저희. 그냥 가면 되는데..

은 숙 / 아니야. 피곤하잖아. 니네.. 명희, 너 피곤하지?

10-2

제자1은 어느새 내렸는지 은숙, 명희 둘뿐이다. 그러나 여전히 썰렁한 드라이브.
때마침 보행신호에 걸려 멈추는 차. 엔진소리마저 잦아들자 그바람에 더더욱 뽕쭈해지는 두사람.
명희, 마치 타이밍을 노리고 있었던듯

명 희 / 교수님!

은 숙 /

명 희 / 너무 멋있으세요

은 숙 / 어?

명 희 / 너무 멋있으시다구요

은 속 / 나?..
명 회 / 네..
은 속 /
명 회 /
은 속 / 그러니?...

신호 떨어지자 무심히 출발하는 은속. 다시 시작되는 둘만의 드라이브. 엔진소리뿐..

S#11

11-1

낮. 서울의 한 동네. 비 온 뒤라 땅이 젖어있다.
석규, 강아지를 데리고 동네를 산책중이다.

빗물이 고인 웅덩이를 만나자 목줄을 번쩍 들어올리는 석규.
줄에 대롱대롱 매달려 공중부양하는 강아지.

11-2

시간경과. 석규의 작업실. 아무도 없다.
붙씩 울리기 시작하는 핸드폰 벨.
책상위, 핸드폰에는 “개새끼님” 이라고 쓰인 발신자 정보가 깜빡인다.

때마침 작업실 문 열리며, 석규 들어온다.
아까 그 강아지는 비닐봉투속에 들어가 얼굴만 내밀고 있다. 비닐봉투를 든 채 전화받는 석규

석 규 / 네. 박필입니다
목소리 / (출판사 김영섭이다) 아! 박작가님? 스타 코믹스예요
석 규 / 예! 부장님
목소리 / 원고.. 어떻게.. 다 됐어요?
석 규 / 네. 다 했습니다
목소리 / 아~. 그럼. 어떻게... 지금 오는 길이에요?
석 규 / 네.
목소리 / 아! 그래요? 잘됐네..
석 규 / ...
목소리 / 아니. 오늘 맥주 한 잔 해야죠..
석 규 / ? ...
목소리 / 우리 박작가님. 이번에 교수님 되셨다면?
석 규 / 아~.. 예...
목소리 / 축하합니다
석 규 / 아휴.....

S#12

석규의 차. 갠로퍼 안. 운전을 하고 있다.
신호등 앞에 멈추는 갠로퍼. 그 앞에 봉고가 서있다. 봉고의 뒷 창에 붙은 광고.

< 무자본. 무점포. 확실한 수입을 원하십니까? 상담환영 전화 / 010-795-8266 >

멍하게 광고문구를 바라보던 석규. 핸드폰을 꺼내 전화한다. 바뀌는 신호. 출발하는 차들

석 규 / 여보세요? 광고 보고 전화 드리는건데요
목소리 / (불량스런 목소리) 무슨 광고요?
석 규 / (앞 차를 따라가며 그대로 읽는다) 무자본.무점포.확실한 수입을 원하십니까? 요.
목소리 / 아!
석 규 / 그게 뭐하는 거죠? 사업이?
목소리 / 어디신데요?
석 규 / 아니. 그냥.. 문의만 드려볼라고 전화 한거거든요..

코너를 도는 봉고. 석규 역시 따라 돈다

목소리 / 응짜.. 어디신데요?
석 규 / 예. 여기 총무로 쪽인데..
목소리 / 어~ 잘됐네. 그럼 잠깐 만나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석 규 / 아니요.. 됐어요
목소리 / 아니.. 만나서 얘기를... 아이~ 씨발. 진짜
석 규 / ???

앞 서 가던 봉고. 오른쪽으로 차를 댈다.
석규, 앞을 주시하면 교통경찰이 석규에게도 차를 대라 신호하고 있다.
크..! 핸드폰 단속!!

S#13

딱지를 떼인 두사람. 똥 씹은 표정으로 서로를 갈구하고 서있다. 둘 다 말은 없다.
봉고의 운전수는 척 보아도, 얼굴에 양아치의 피가 흐른다.
화를 억누르고는 봉고에 올라타는 양아치. 그 때

석 규 / 아저씨
양아치 / ?
석 규 / 내가 괜찮은 사람. 하나 소개시켜 줄까요?
양아치 / 뭐요?
석 규 / 아저씨. 얼굴 보니까 대충 뭐하는 사업인지 알겠구만
양아치 / 이런.. 개새끼가
석 규 / 무자본. 무점포면 씨발 안봐도 딱이지.. 내가 딱 그런사람 하나 알고 있거든?
전화 한번 해볼래요?
양아치 / ?... (뭐 저런 개새끼가 다있어? 하는 표정)

S#14

14-1

며칠뒤. 청솔 유원지 입구. 주차장.
검은색 티뷰론 한 대가 미끄러져 들어온다. 차에서 내리는 20대 중반의 빨간머리 젊은이. 앞 썬에서
본 양아치가 그에게 다가간다.

양아치 / 사장님! 오디오 한번 보세요
 젊은이 / 아니에요
 양아치 / 이거, 예쿠스에 남품 들어가는 건데.. 물건 주러 왔다가 몇 개 남은거거든..
 젊은이 / 아이. 이거 제 차 아니에요
 양아치 / 반값에 드릴께요. 이거 가져가봤자 아무 소용도 없고, 그냥 바닷가 왔으니까 회나 한접
 시 먹으려고 그러는거예요. 네?
 젊은이 / 아이. 아니에요
 양아치 / 사장님! 알았어. 사지마. 사지말고 구경만 해 보세요. 네?

싫다는 젊은이를 억지로 끌고가는 양아치. 씬 12,13에서 본 봉고로 데려간다.
 두사람. 봉고 안으로 들어가면, 어딘가에서 기술자 두명 나타나 티뷰론 안으로 들어간다.

14-2

시간경과.
 젊은이, 봉고에서 나오는데, 웬 남자들이 자기차의 오디오를 교체하고 있는걸 보고

젊은이 / 뭐예요? 거기?
 기술자 / 네?
 젊은이 / 남의 차에서 뭐하는 거예요?
 기술자 / 오디오. 구입하셨잖아요?
 젊은이 / (어이었다) 네? 아니. 이사람들. 이거 순 사기꾼이잖아

젊은이. 노발대발하는데..
 이때 갑자기. 티뷰론 바로 옆에 있던 젤로퍼에서 혈상국은 남자(석호), 나오며

석 호 / 뭐? 사기꾼? 이런 좃만한 새끼가. 너 일루 와봐. 일루 와봐! 새끼.

난데없는 석호의 위협감에 딱 쫓는 젊은이.

석 호 / 겁대가리 없는 새끼가. 니가 산다고 해서 붙여왔는데, 뭐가 사기꾼이야? 이 씹새야!
 저거 봉다리 다 뜯었는데 어떡할거야? 어떡할거야?
 주당이를 콧 도려내서 보지를 만들어 버릴까부다. 쌍놈의 새끼.

헉! 무지막지하다. 이때, 양아치 다시 등장하며

양아치 / 어허.. 그 사람 참.. 손님한테..

14-3

봉고 안. 카드를 굵고있는 양아치. 잔뜩 쫓 젊은이.
 석호는 젊은이의 빨강색 머리가 못마땅한듯 빤히 쳐다본다. 그러다 갑자기 머리를 쓰다듬으며

석 호 / 아버지 뭐하시냐?
 젊은이 / 네?
 석 호 / 아버지 뭐하시냐고?
 젊은이 / 그냥 집에 있는데요
 석 호 / 안바빠? 아버지?
 젊은이 / 네

석 호 / 휴~ 아버지한테 잘해라..
 우리집에도 너처럼 대가리 시벨건 새끼 하나 있거든.
 (갑자기 뒷통수를 후려치며) 뇌들이 무슨 성냥개비냐. 이 새끼들아
 양아치 / 어허.. 그 사람 참.. 손님한테..
 자! 일시불이고... 괜찮은거여. 이거.. AS도 되고.. 박스 밑에 전화번호 있지?

이때 차 밖에서 누가 똑똑! 노크한다. 사람들 약간 놀라며, 일제히 쳐다보면...
 석규다!

S#15

침술 유원지 오리배 선착장 주변. 석호와 석규 형제. 뒤로 호수가 보인다. 덩다.

석 규 / 어떻게.. 할 만 해?
 석 호 / 노는거보단 낫지
 석 규 / 썸 하다 마. 그새끼 그거. 존나 양아치거 같던데
 석 호 / 양아치지.... 야! 너 잘왔다. 너. 애좀 잡아 와라
 석 규 / 누구?
 석 호 / 아이씨. 우리 용희
 석 규 / 또 나갔어?
 석 호 / ...
 석 규 / 아휴~ 형 아들이니까 형이 잡아와
 석 호 / 나 바쁘잖아
 석 규 / 뭘 바빠? 형이.
 석 호 / 아이씨.. 돈 벌잖아. 지금.. 그리고 내가 가면 그새끼 반 죽어. 안돼..
 석 규 / 나 안돼. 지방 가. 당분간
 석 호 / 지방? 왜?
 석 규 / 아이.. 심천에 무슨 전문대에 만화관가 뭔가 생겼는데, 와서 애들 좀 가르치래
 석 호 / 야. 엄한 새끼들 가르치지 말고, 니 조카나 잡아다가 좀 가르쳐.입마.. 알았어?

난처한 석규. 쫓 된 표정.
 서로를 외면한채 카메라쪽을 바라보는 두사람. 썸~렁 하다.
 이때, 오리배가 프레임 오른쪽에서 스욱 미끌어져 들어와 카메라쪽으로 얼굴을 돌린다.
 석규. 석호. 오리의 정면 스리샷.

S#16

16-1

고급 횡집 2층. 문교수와 마주앉아 있는 은숙.
 종업원이 쓰끼다시를 내온다. 그 중, 눈에 띄는 불붙은 소라.

은 숙 / 어머!
 문교수 / 처음 왔어요?
 은 숙 / 어떻게 먹으라고.. 이걸
 문교수 / 뭘 어떻게 먹어요? 끄고 먹지. 비린내 가시라고 하는거잖아요.

문교수, 불붙은 소리를 들어 담배불을 붙인다

은 숙 / 음식 나왔는데 담배는 왜 피요?

16-2

문교수. 어느정도 취한 듯 누군가를 맹렬히 씹고있다. 은숙은 부지런히 먹으며 듣는다.

문교수 / 성격, 진짜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콤플렉스야 뭐야..

지가 공부 못해서 못된거지. 왜 다른 교수들을 싸잡아서 빈정대

은 숙 / 화 푸세요.. 근대.. 유선생님. 옛날에 실어증 걸렸었다는거 그건 진짜래요.

데모하다가 근대 끌려갔을 때..

문교수 / 누가 그래요?

은 숙 / 누구한테 들었는데..

문교수 / 어서 들어요? 들긴. 그게 다 지가 하고다니 소리예요. 그럼, 그때 좋다고 떠들고 다닌 사람

이 어딴어요? 그렇게 따지면 다 실어증이지..

그냥 며칠 우울했던거예요. 그걸 갖고 실어증이니 뭐니.. 아휴...

은 숙 / ...

문교수 / 다 콤플렉스 때문에 그러는거예요. 단체 나와서 활동하고 그러는것도..

은 숙 / ...

문교수 / 그리고, 단체에는 뭐 연애하러 나와요? 왜 그렇게 티를 내. 티롤..

은 숙 / 그 애긴 하지마요

문교수 / 물론. 뭐.. 조교수님이 제일 곤란하겠지만. 아니.. 애들 가르치는 사람이 말야..

은 숙 / 그만 하세요. 문교수님도 처음에 저한테 그러셨어요. 기억 안나요?

문교수 / ...

은 숙 / 기억나요? 안나요?

문교수 / 나죠..

은 숙 / 뭐라 그러셨는데요? 네?

문교수 / (무안. 빨쭈) ...

은 숙 / 뭐라 그러셨는데요?

문교수 / (러시아어로) "-----"

은 숙 / 거봐요. 문교수님도 고백했었잖아요. 저한테

처음에.. 문교수님. 저한테 그러실 때.. '좋아하면. 사랑하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 생각했어요

문교수님도 그렇게 얘기 하셨구요. 그러시는거 아니예요

썰렁~

S#17

은숙의 아파트. 주차장. 은숙, 차에서 내려 걸어간다. 그녀의 불편한 다리..

아파트 경비실 앞을 지나던 은숙, 경비실 안에서 무언가를 발견한 듯 멈춰선다.

은 숙 / 어머! 유선생님!

경비실에서 수위아저씨와 함께 TV를 보며 킁킁거리리는 남자. 다름아닌 유선생이다.

유선생 / 어휴~ 지금 오세요? (경비실에서 나오며. 약간 취한 듯. 전작이 있었나부다)

은 숙 / (놀라며) 웬일이세요?

유선생 / 근처에 좀 왔다가요.. 조기서 심천시 교사모임 했거든요..

은 숙 / 네..

유선생 / 식사 하셨어요?
 은 숙 / 네
 유선생 / 아~ 하셨구나. 저도 식사는 했는데.. 저... 뭐 드셨어요?
 은 숙 / 그냥. 밥이요
 유선생 / 그럼.. 저하고 참치회 한 점 하실래요?
 은 숙 / 회요?

헉! 또 회? 오늘 횃북 터진날이다. 황당한 표정의 은숙

S # 18

18-1

참치 횃집. 눈에 띄는 간판 <'1인 15,000원. 만족하실 때 까지' >

바 (bar) 같은 테이블 앞에 나란히 앉은 두사람. 유선생은 취한 듯. 은숙은 그렇게 먹고도 또 먹는다.

유선생 / 과연, 벗어나 되냐 이겁니다. 진짜 교수가.. 아까도 봐요.. 문교수. 성명서 쓴거. 그게 교수가 쓴 거예요? 애들 눈술보다도 못하게 써놓고, 어디 서명을 받습니까? 뺨피한줄을 알아야지.. 천박자본주의가 뭘니까? 천박자본주의가.. 천민자본주의지..

은 숙 / 그래도 열심히 하시잖아요

유선생 / 열심히 하는건 다른 문제죠..

그리고.. 이건 진짜 네거티브 한거라서 애기 안할려고 했는데.. 국문과 전공하는 사람이 왜 러시아로 유학을 갔댐니까? 아니.. 한국어 학위를 왜 쓰련까지 가서 받아와요? 이해가 가요? 그게?

은 숙 / 어쨌든 전. 두분 그러시는거 불편해요 (맛있게 먹으면서..)

유선생 / 불편하시다.. 휴~.. 불편하시겠죠... 휴~~ (땀이 썩질 듯..)

은 숙 / 알았어요.. 그만 하시고, 이것 좀 드세요

유선생 / 아니.. 저는 많이 먹었어요

은 숙 / 빨리 먹어야 또 갖다주죠. 저 쪽은 계속 갖다 주잖아요..

18-2

유선생은 많이 취해 있다. 몸에 힘이 없는 듯

은 숙 / 유선생님!

유선생 / ..?..

은 숙 / 참치회 먹는 법 가르쳐 드릴까요?

유선생 / 네?

은 숙 / 제가 아까부터 봤는데.. 이렇게 종류별로 하나씩 먹는게 아니고, 한 부위를 다 먹고, 또 다른 부위를 먹어야돼요..

유선생 / 왜요?

은 숙 / 저 주방장이 저기서 보고, 없는것만 갖다 주잖아요.. 빨간색이 없으면 빨간거 갖다주고, 하얀거 없으면 하얀거 갖다주고.. 조금 조금씩 다 있으면 안갖다줘요...

그 말에 뚫어져라 은숙을 쳐다보는 유선생.

은 숙 / 왜요?

유선생 / 참 순수하세요

은 숙 / ...
유선생 / 은숙씨..
은 숙 / ?...
유선생 / 사랑합니다

헉! 마주보는 두사람. 긴 시간. 정적

S#19

부천의 한 동네. 석규, 중학생으로 보이는 남자아이와 언덕을 오르고 있다. 옹희 친구인 듯.
조카 옹희를 찾아나선 모양이다.
나란히 걷다가, 순간.. 중학생 녀석, 뺨다 뒤로 도망친다.
석규, 놀라 쫓 따라가보지만 이미 멀어진 녀석.

석 규 / 야! 임마!! 뭐야? (다급한 고함)
중학생 / (뒷걸음으로 어슬렁거리며) 저 걸리면 옹희한테 죽어요! (고함)
석 규 / 괜찮다고 했잖아!
중학생 / 안돼요. 죽어요!
석 규 / 그럼. 어떡하랴?
중학생 / ... (어슬렁)
석 규 / 야! 암마! 야이 새까!!

순간. 도망치듯 사라지는 중학생. 난감한 석규 얼굴.

S#20

20-1

같은 동네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 운동장에서는 초등학교 야구부가 연습하고 있다. 실력은 어설피지만 코치의 고함과 아이들의 파이팅 소리가 요란하다. 스탠드에 앉아 구경하는 석규.

20-2

시간경과.
석규의 시점으로 운동장이 텅 비어있다. 돌아보면 저쪽 끝에 둥글게 모여있는 아이들. 작전회의 인듯.
코치와 아이들, 작전회의에 여념이 없다. 운동장에 방치된 방망이와 글러브 몇 개.
석규의 눈이 그들의 동향을 살핀다

S#21

같은 동네의 골목길. 야구방망이를 봉봉 휘두르며 걸어가는 석규. 좋아라~ 한다.

S # 22

같은 동네. 옹희의 자취방 앞. 석규가 멍하니 서서 방문을 바라보고 있다.
옹희의 농구화와 야시시한 여자 샌들 하나, 놓여있다.
문 밖으로 새어나오는 소리 - 조카의 떡 치는 소리다.
간간히 옹희와 여자애의 목소리도 들린다.
멍하니 서있는 석규. 석규의 회상이 이어진다.

S # 23

23-1

자취방 안. 마치 전 썬의 자취방 같지만 석규의 회상이다.
석규의 회상은 썬 23부터 썬 28까지 계속된다.

< 자막 / 1986년 여름. 청주 >

떡치고 있는 중3 석호와 중1 은숙. 중학생다운 투박한 섹스. 하얗고 빈약한 육체의 격렬한 움직임이
낯설면서도 자극적이다. 은숙의 신음소리는 오히려 고통에 가깝게 들린다.
마치 일본의 여고생 포르노같다. 생경한 섹스

23-2

문 밖. 섹스 소리를 듣고있는 중1 석규
(썬 22의 석규와 똑 같은 앵글. 사이즈다)

S # 24

하교시간. 교문 앞. 석호가 얼마나 종두와 함께 교문을 나선다. 더없이 불량한 모습이다.
종두, 석호의 가방까지 들고 있다. 이때 교문에서 기다리고 있던 석규, 다가간다
셋 다 같은 교복을 입고 있다.

석 규 / 형!
석 호 / 뭐해? 여기서
석 규 / 집에 엄마있어. 지금
석 호 / 에이 씨~발. 은숙이 오라고 했는데..
석 규 / 집에?
석 호 / (끄덕끄덕)... 은숙이?
석 규 / 담배 피다 걸려서 남았어
석 호 / 미친년. 씨발 좆나 까져갖고.. 나도 학교에선 안피는데..

그냥 서있기만 해도 불량해 보이는 문제아들..

S # 25

25-1

폐 야외수영장. 꽤 오랫동안 방치된 듯 잡초가 무성하다. 벗겨진 페인트 때문에 더욱 황량해 보인다.
이곳은 녀석들의 아지트다.

석 규 / (담배를 꺼내며) 형! 이게 뭔지 알어?
 석 호 / ..?
 석 규 / 은숙이. 담배 걸렸다고 했잖아. 담임이 담배 찾는다고 쫓나 되었는데 안걸렸거든..
 근데 어따 숨겼는지 알어?
 종 두 / 어따 숨겼는데?
 석 규 / 뺨스속에.
 석 호 / 에이~ 드러운 년. 씨발
 석 규 / 쫓나 웃기지? (담배 냄새를 맡으며) 아! 보지냄새~
 종 두 / 진짜야? 쥐봐
 석 규 / 안돼요. 아~ 냄새 쫓나 회한하네.. 씨발
 종 두 / 쥐바바. 새까

25-2

석 호 / (뜯금없이) 야! 이종두!
 종 두 / 응?
 석 호 / 너. 은숙이 좋아하지?
 종 두 / 아냐
 석 호 / 뒤질래? 좋아하잖아. 씹새야
 종 두 / ...
 석 호 / 박고 싶지?
 종 두 / 어?
 석 호 / 너. 은숙이랑 쫓나 박고 싶지?
 종 두 / ...
 석 호 / (석규를 돌아보며) 너는?
 석 규 / 어?
 석 호 / 너두 쫓나 박고 싶지?

당황하는 두 녀석. 그 위로 석호의 목소리

"니네 들어 싸워서 이긴 사람. 한 번 박게 해줄게"

갑자기 심각해지는 두 녀석. 진짜 심각해 보인다.

S # 26

석규의 집. 석규의 엄마가 누군가를 마땅치 않은 얼굴로 쏘아보고 있다.
 맞은편의 사람은 다름아닌 은숙이다. 은숙도 지지 않는다.
 서로를 불편하게 보고있는 두사람. 냉랭하다

S # 27

물빠진 수영장 풀안. 엉켜서 열라 싸우고 있는 두사람. 완전 개싸움이다. 치절한 수컷들의 전투..
 한참이나 막상막하로 진행되던 상황. 어느틈에 종두가 석규를 깔고앉아 주먹질을 하기 시작한다.
 구경하던 석호. 갑자기 풀 안으로 뛰어내린다.
 종두를 발로 후려차며

석 호 / 그만해! 새까! 3학년이 1학년한테 찢찢매냐? 무승부!!

얼굴이 개갈창난 종두. 아~ 좇나 억울하다.
밑에 깔린 석규. 역시 아작난 얼굴..

S # 28

교실 안. 쉬는 시간. 석규에게 다가오는 은숙.

은 숙 / 석호 오빠 아직 안들어왔나?
석 규 / 응
은 숙 / 언제 온데?
석 규 / 몰라. 씨~ 아빠가 잡으러 갔으니까 금방 오겠지
은 숙 / ...
석 규 / ...
은 숙 / 너. 저번에 종두 오빠랑 싸웠대매?
석 규 / ...
은 숙 / 너. 나랑 하고싶지?
석 규 / 어?
은 숙 / 있다가 할 까?
석 규 / ...왜?
은 숙 / ...네가 이겼대매..

헉! 나이에 맞지 않게 매혹적인 은숙. 어쩔 줄 모르는 석규.

S # 29

다시 현재. 차 안. 저녁.
석규가 용희를 태우고 서울로 돌아오고 있다. 석호 말대로 용희는 빨강머리다.
앞좌석에 나란히 앉은 삼촌과 조카. 둘다 말없이 무표정하다.
뒷 좌석에는 용희의 동거녀. 그녀는 과잔지 뽕튀긴지를 먹고있다. 그러다 갑자기 실실 웃음보가 터지는 동거녀.

동거녀 / (웃음섞인 목소리로) 씨발.. 그렇다고 방망이를 들고 쫓아오냐.. 삼촌 맞어?
용 희 / (버럭) 아가리 안닥쳐! 씨발년아!

지 애비를 닮아 살벌하다. 분위기 더욱 싸~해진다.

S # 30

사무실 안. 낮. 회원들 모여 TV를 보고 있다. 일전에 은숙이 출연한 '내고장 환경지킴이' 방송이다.
브라운관 안의 은숙. 진지하게 설명하고 있다. 톡톡히 리포트하는 김PD도 보인다.

오프닝썬에서 본 장면들이다. 열심히 방송을 보는 회원들.

은숙. 약간 긴장된 얼굴로 방송을 보고 있다. 한동안 김PD의 리포트가 이어진다. TV로 보아도 역시 샤프한 김PD. 은숙의 시선이 점점 김PD에게로 빨려 들어간다. 이때

문교수 / 스톱! 스톱! 조교수님 그때 안경 안쓰시지 않았나?
은 숙 / 네? (당황)
문교수 / 그때 렌즈 끼셨잖아요
안교수 / 어? 그러네 정말.. 안경 썼네. 저기...
유선생 / 그러게요..
문교수 / 이상하네...
은 숙 / 아휴~ 지금 꼭 안경 애길 해야돼요? 좀 보자구요..

다들 빨썬...

은숙의 시선은 다시 TV로 고정된다. 브라운관 속의 김PD가 은숙을 정면으로 쳐다보고 있다.

S#31

31-1

고급 한식당. 유선생이 혼자 앉아있다. 뭘 하나 살짝 집어먹고는 젓가락을 헛바닥으로 훑어 뒀는다. 아직 아무것도 안 먹은듯.

31-2

카운터 앞에 서서 전화하고 있는 은숙. 한 쪽 손은 나머지 귀를 막고 있다.

은 숙 / 김영호 PD님 자리에 제신가요?
목소리 / 지금 자리 비우셨는데요..
은 숙 / 네..
목소리 / ...
은 숙 / ...
목소리 / 저기요.. 혹시.. 조은숙 교수님 아니세요?
은 숙 / 네.. 제가 조은숙인데요..
목소리 / 아~ 조교수님 맞으시구나.. 저 조연출하던 김장렬입니다.
은 숙 / 아. 네.. 안녕하세요?
목소리 / 저.. 그럼.. 김PD님. 핸드폰 번호 불러드릴까요?
은 숙 / 아니에요.. 그냥 방송 잘 봤다고 전화 한 건데..
목소리 / 네~..
은 숙 / ...
목소리 / ...
은 숙 / ...
목소리 / 여보세요?
은 숙 / 아무래도 직접 인사를 드리는게 맞겠죠?

31-3

잘 차려진 밥상. 별 얘기 없이 식사하는 은숙과 유선생.

S # 32

심천 디자인 대학. 염색실습실. 실습을 진행중인 은숙. 제법이다.

S # 33

33-1

심천 디자인 대학. 단과대 로비.
신사복을 입은 남자의 뒷모습. 벽에 부착된 무언가를 유심히 올려다 보고 있다.
이때, 또각또각 구두소리 들린다. 그 소리에 신사복의 남자 뒤돌면, 다름아닌 유선생이다.
프레임 되는 구두소리의 주인공, 은숙.
은숙은 유선생과 눈이 마주치자 방향을 바꿔 발걸음을 옮긴다. 유선생 따라간다.

33-2

심천 디자인 대학. 의상작업실. 수십여대의 낡은 재봉틀이 햇빛을 받아 묘하게 반짝인다.
창가에 어정쩡하게 서 있는 두사람.
창밖 운동장에는 남학생 십여명이 축구공대를 옮기고 있다.

은숙은 웬일인지 빠져있고, 유선생은 미안해서 어쩔줄 모르는 분위기다.

유선생 / 곤란하셨다면 죄송합니다.
은 숙 / 여기 제 직장이에요. 유선생님도 학교 나가시잖아요. 학교가 얼마나 말이 많은렌지 모르세요?
유선생 / .. (무안. 뺄줌..)
은 숙 / ...
유선생 / 지나는길에 마침 식사시간이어서..
은 숙 / 요즘 우리, 식사 너무 자주하는거 아세요? 식사하는게 그렇게 중요해요?
유선생 / ... (점색을 하고, 너무도 진지하게) 저도 식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은 숙 / ...
유선생 / 같이 한다는게 중요하죠. 식사를 하던, 뭘 하던

오히려 더 무안해진 은숙. 그런 은숙의 얼굴위로 단호한 유선생의 목소리

“그럼. 식사말고 다른걸 찾아보죠”

휴~ 절대 수습이 안되는 분위기다.

S # 34

34-1

국도 휴게소로 진입하는 석규의 차. 차에서 내리는 석규. 양복차림이다.

34-2

종이컵을 훌쩍이며 대형 간판을 올려다 보고있는 석규. 관광코스가 그려진 만화지도다. 만화 캐릭터의 칼라며 구성이 오래된듯 촌스럽다.

석 규 / (혼잣말로) 아이.. 이거 아직도 걸어놔네.. 이게 언제적건데.. 씨발..

이때 멧쟁이 언니들 네다섯명, 간판을 보러 석규 옆으로 온다. 모델 뺨치는 패션, 몸매다. 쪽팔린 듯 은근슬쩍 자리를 뜨는 석규.

34-3

석규의 차 안. 출발직전. 뭔가를 바라보고 있는 석규.
석규의 시점. 멧쟁이 언니들, 죽이는 포즈로 아직도 간판을 올려다보고 있다. 다들 마네킹같다.

석 규 / 쓸데없는거에 학구적이야?.. 쪽팔리게..

S # 35

다시 국도를 내달리는 석규의 차.
생각이 많은 얼굴로 운전하고 있다.

차창밖 풍경이 한참이나 계속된다. 이어지는 석규의 회상.

S # 36

36-1

석규의 회상.
저녁. 씬 25의 폐수영장.
원경으로 보이는 두사람의 개싸움. 처절하다. 중1 석규와 중3 종두다.

36-2

시간경과. 싸움은 종두의 우세다. 넘어진 석규를 올라타는 종두. 강편치를 몇번 휘두른다.

종 두 / 이 씹새야! 했어? 안했어? 엉?
석 규 / 안했어. 씨발
종 두 / 좇까. 씨발놈아. (몇대 더 후려치는 종두)
석 규 / ... (무방비로 얻어터진다)
종 두 / 했지? 너 씨발놈. 은숙이 먹었지?
석 규 / 우리형 오면 죽을줄 알아. 씨발
종 두 / 어휴. 이 씨발놈이. 진짜.. (다시 무자비하게 시작되는 주먹질)

석규, 불쌍하리 만큼 얻어터진다. 이때, 들리는 먼 목소리.

야이! 씨발놈아 !!

헛! 석호다!! 종두. 그 자세로 일어붙는다.

시간경과. 잔뜩 졸아있는 중1 은숙의 얼굴.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긴장이 느껴진다.
석규, 종두, 석호. 모두 숨죽이며 그녀를 주목하고 있다.
이윽고 열리는 은숙의 입

은 숙 / 안했어

은숙의 대답.. 침묵이 깨진다. 버려진 각목을 하나 집어드는 석호. '오.. 살기가 느껴진다..'

석 호 / 안했다는데?..

극도로 쏘은 종두. 변명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다.
석호, 석규에게 각목을 던지며

석 호 / 니가 패!

석규, 얼결에 각목을 집어들어 망설이다가 조금씩 종두에게로 다가간다. 점점 정신을 잃어가는 종두.

종 두 / 미안해 씨발. 미안해. 오지마!! 오지마!!.. 씨발놈아!!!

별안간, 벌떡 일어나 도망치는 종두. 그 바람에 석규, 석호, 은숙도 갑자기 종두를 쫓기 시작한다.
그러나 필사적인 종두를 따라잡지는 못하는 녀석들.
'우르르' 수영장 풀 주위를 두바퀴나 돌지만 거리는 좁혀지지 않고, 외려 쫓던 녀석들이 중간중간 미
끌어져 넘어지기도 한다. 저희끼리 낄낄대는 녀석들.
필사의 탈출과 추격은 어느샌가 흘러나오는 장난섞인 음악과 더불어 마치 아이들 장난처럼 돼 버린다.

그러던 순간!

장난스럽던 음악, 갑자기 '깡' 하고 끝나며. 코너를 돌던 종두, 미끌어지며 풀장 안으로 처박힌다.

차디찬 수영장 바닥에 거꾸로 박힌 종두. 파란색 타일 위를 서서히 잠식하는 검붉은 피.

순식간에 일어난 사고에 석규, 석호, 은숙. 모두들 할말을 잃는다. 끝없는 침묵과 두려움.
죽음의 현장에 어둠이 밀려온다.

S #37

다시 현재. 심천 시내의 한정식집. 저녁. 5~6명의 사람들이 식사를 하고 있다.
그 중에 푸른심천 21 안교수도 있다. 점잖은 분위기.

창호지 미담이문이 조심스레 열린다. 얼굴을 들이미는 사람은 다름아닌 석규다.
모두들 식사 하다말고 쳐다본다.

석 규 / 늦어서 죄송합니다. 만화과 강의 나오게 된 박석규입니다.
무리 1 / 아! 아이구.
석 규 / 오다가 어딜 좀 들릴일이 생겨서.. 죄송합니다
무리 1 / 저. 여기 학장님이십니다. (손으로 학장을 가리키며)
석 규 / 처음 뵙겠습니다. 박석규라고 합니다.
학 장 / 들어오세요. 왜 그렇게 서 계십니까? 허허..

문 밖에 서 있던 석규. 머쓱하다.

37-2

학장과 교수들, 별 애기없이 '허허허' 웃기만 한다.
유독 석규만 고개를 숙인채 뺄뺄해 하고있다. 분위기 묘한 '허허허' 웃음소리만 계속 되다가

안교수 / 박작가님! 필명 입니까? 박필이?
석 규 / (목소리만) 네..
학 장 / 필명은 우리같이 글 쓰는 사람이 쓰는 거구.. 뭐라고 하죠? 그림 그리는 분들은?
석 규 / ...
학 장 / 예명이라고 하나? 만화도 요즘엔 예술로 치니까..
석 규 / (쑥스러운듯) 예..

컷트 넘어가면... 석규, 학장의 캐리커처를 열라 그리고 있다. 다들 석규의 그림을 주시하고 있다.
떨리는 손. 진땀나는 분위기.
그 위로 학장의 목소리

학 장 / 아직 멀었습니까?
안교수 / 우리 박작가님. 첫날부터 지각하셔서 고생이 많습니다.

안교수의 농담에 다같이 '허허허' 화답한다. 혼자만 죽 된 석규.

S#38

심천 디자인 대학. 검색과 조교실.
강의를 마친 은숙. 출석부를 들고, 조교실 문을 연다. 문을 열고, 옆 책상에 출석부를 올려놓는다.

김조교 / 수고하셨습니다.
은 숙 / 어! 김조교야. 있다가 나 좀 들려!

하고, 나가는 은숙.

S#39

심천 디자인 대학. 은숙의 연구실. 은숙 어딘가에 전화를 하고 있다.

은 숙 / (아이를 달래듯) 아빠가 김영호 PD님이예요?

목소리 / (김영호 PD의 딸이다. 유치원생 정도) 네
 은 숙 / 아빠, 언제세요?
 목소리 / 아빠 없어요
 은 숙 / 방송국 가셨나?
 목소리 / 네...
 은 숙 / 근데 어떻게 나가 받아?
 목소리 / ...
 은 숙 / 아~ 아빠가 전화기 놓고 가셨구나..
 목소리 / ...
 은 숙 / (잠시 주저하다) 엄마는요?
 목소리 / 없어요
 은 숙 / 엄마. 어디 가셨어요?
 목소리 / 엄마 없어요
 은 숙 / 엄마가 없어요?
 목소리 / 네..
 은 숙 / ... 엄마가 언제시니?
 목소리 / 네
 은 숙 / ... (잠시 침묵 후) 거기.. 무슨 동이야?
 목소리 / 108동이에요
 은 숙 / 어.. 아니... 108동 말고

그때 노크소리 '똑똑' 나더니, 김조교 들어온다.

은 숙 / 네. 교수님. 108동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은숙, 수화기를 내려 놓는다.

은 숙 / 어.. 왔어? (쪽지를 건네며) 저기. 이것좀 뽑아서 붙여놓래? 한번 알아봐주면 고맙고..
 김조교 / 네..

S#40

심천 디자인 대학. 검색과 조교실 앞 복도. 게시판.
 A4지 공고가 하나 붙는다.

< 아르바이트 모집 >

종류 / 책 디자인 및 편집 (1명). 만화. 일러스트레이션 (1명).
 기간 / 7월초~

※ 프로 보다는 아마추어라도, 환경운동이나 사회봉사활동에 관한 관심이나 사명감 있는분 환영.

- 검색과 조은숙 교수 / 푸른심천 21 (전화) 062/4529-9472-

S # 41

심천시청. 시의회 강당.
공무원과 시의원, 환경연합회 회원 및 시민이 모여 공청회를 하고 있다. 은숙이 진지하게 발언한다.
취재하는 몇몇의 지방지 기자들 틈에 SBC 김PD도 보인다.
은숙, 김PD를 발견한다. 더욱 열변을 토하는 은숙.
심천시 관내 섬유공장에서 흘러나오는 폐수의 농도와 정화시설에 관해 발언하는 은숙. 꽤 전문적이다.

S # 42

강당 앞 로비. 은숙, 김PD를 기다리는 듯 가지않고 서있다. 팔짱을 끼었다가 풀었다가.. 땅을 쳐다봤다가 들었다가..를 한참... 그때

김 PD / 안녕하세요?
은 숙 / 어머? 안녕하세요?
김 PD /
은 숙 / 여긴 뭘일이세요? (쿄쿄! 숙보이다)
김 PD / 저. 못보셨어요?
은 숙 / 네..
김 PD / ...
은 숙 / ...
김 PD / 공청회 하는거, 스케치하러 왔습니다.
은 숙 / 네..
김 PD / ...
은 숙 / ...
김 PD / 저.. 안경..없으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은 숙 / 네? 아~... 다시 했어요. 지금은 렌즈했고.
김 PD / 아~..
은 숙 / 저.. 그 안경.. 다시 받을수 있을까요?

빨이 통한 두사람. 마주보는 시선. 어색하지만 뜨겁다.

S # 43

43-1

밤. 은숙의 아파트. 은숙의 집 앞 복도.
복도 센서등이 켜져있고, 웬 남자가 은숙의 집 앞에서 얼쩡거린다. 자세히 보면 유선생이다.
유선생은 문에 귀를 대어보기도 하고, 문구멍을 통해 안을 들여다 보기도 한다. 술이 좀 된듯 하다.
그러다 별안간 센서등 꺼진다. 완전한 암흑.
몇초간의 암흑 계속되다가, 순간!

센서등 팍! 들어오면, 옆차기를 한 자세로 멈춰있는 유선생. 오! 이소룡이 따로 없다.
술기운에 멧진 발차기로 센서등을 켜 유선생. 그러나 이내 정신을 차리고 보면
복도 끝에서 은숙이 다 보고있다
쪽팔린 유선생. 옆차기 자세에서 서서히 다리를 내린다.

은숙, 집 안으로 들어가 문을 반쯤 열어놓은채 유선생과 대치하고 있다. 유선생은 문밖에 서있다. 취한 유선생, 그의 알록달록한 개량한복이 인상적이다.

유선생 / (취한 목소리) 초인종 소리가..
 은 숙 / ...
 유선생 / 저희집꺼랑 똑같던데요..
 은 숙 / 똑같겠쥬. 그럼. 들다 주공아파트데.. (쌀쌀맞게)
 유선생 / (끄덕끄덕)
 은 숙 / 휴~ 가세요. 그리고, 그런 것 좀 입고 다니지 마요
 유선생 / 왜요?
 은 숙 / 늙어 보여요. 할아버지 같고..
 유선생 / 크크...
 은 숙 / 걸멋 아니예요? 그거?
 유선생 / 뭐가요?
 은 숙 / 그거.. 활동하는 사람들 유니폼이잖아요... 개량한복!
 유선생 / (웃) ...
 은 숙 / ...
 유선생 / ...
 은 숙 / 기분 상했쥬? 지금?
 유선생 /
 은 숙 / 기분 상하라고 그런거예요.
 유선생 / ...
 은 숙 / (유선생이 아무말 없자. 좀 미안한듯) 그냥... 개인적으로 그렇단 거예요.
 유선생 / 그럼 개인적이지, 단체적으로 그렇니까?
 은 숙 / ...
 유선생 / ...
 은 숙 / 파자마 같잖아요. 꼭
 유선생 / 조교수님! 파자마가 뭘지 알아요? 파자마 영업니다. 영어..
 피! 에이! 제이! 에이! 엠! 에이! 파자마!!
 몰랐쥬? 다 아는거 같아도 조교수님이 결코 알수 없는 세계. 그런게 있습니다.

단호한 유선생앞에 말문이 콧 막히는 은숙.

S#44

심천 산업대. 만화과 강의실.
 학생들의 절반이 노골적으로 자고있다.

강의하고 있는 석규. 아이들이야 자건 말건 말없이 칠판에 만화를 그리고 있다. 점점 엽기적인 그림이 되어간다.

S#45

저녁무렵. 심천 산업대.
 텅빈 강의실 복도. 석규, 퇴근을 하는듯 가방을 들고 복도를 걷는다. 제법 교수같다.
 썬 44의 강의실을 지나는 석규. 문득 창문을 통해 강의실을 힐끗 본다. 무언가를 발견한 듯한 표정.

강의실 안에서 남녀학생 2명이 짝한 롱-딤키스를 하고 있다.
한동안 호기심있게 훑쳐보던 석규. 갑자기 창문을 주먹으로 '꽝' 치고는 재빨리 달아난다.
ㅋㅋ! 웃기는 놈!

범썩있는 남녀커플. 문득 그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석규의 그림 (강의시간에 그린 만화다 - 엽기적인)

S # 46

46-1

심천 국립공원 등산로 주차장. 김PD의 차, 진입한다. 은숙이 함께 타고있다.

김 PD / 내리시죠. 여기서 조금만 올라가면 좋아요. 아무도 없고..
은 숙 / 걸어가요?
김 PD / 그럼요. 산에 왔는데..
은 숙 / 나 걷는거 싫어하는데.. 구두 신고 왔고..
김 PD / 그래요?
은 숙 / 네

46-2

등산로 입구. 차가 들어갈 수 있는 길이지만, 공익근무요원이 바리케이트로 차량통행을 막고있다.
공익과 대치중인 김PD의 차.
그때, 저쪽에서 관리소장이 뛰어온다. 김PD한테 넙죽 인사를 하는 소장. 이윽고 손수 바리케이트를 치운다. 유유히 등산로를 오르는 김PD의 차.

은숙, '오! 이남자 봐라~' 하는 표정.

S # 47

47-1

공원 숲속. 김PD의 말대로 울창한 나무 뿐, 아무도 없다.
의자를 뒤로 제껴 벌러덩 눕는 김PD. 이어 은숙도 의자를 제끼고 눕는다.

김 PD / 좋죠?
은 숙 / 네

김PD, 팔을 뻗어 은숙에게 팔베개를 해주고는, 예상대로 키스 들어가 주는데.. 그때!! 은숙, 깜짝놀라 일어나며

은 숙 / 엄마야!!
김 PD / 왜요?
은 숙 / 저기 봐봐요!

김PD, 앞을 보면, 숲속에서 예비군 한명이 느릿느릿 나오고 있다.

은 숙 / 뭐예요? 간첩이예요?

김 PD / 아니예요. 예비군 훈련하는 거예요. 혼자 길을 잃었나보네..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숲 사방에서 슬금슬금 기어나오는 예비군들. 여기저기 30명은 돼보인다.

은 숙 / 뭐예요?

김 PD / (당황스럽지만, 아무일도 아닌듯)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음방 가요

역시나, 말 끝나기 무섭게. 호루라기 소리 '삐리리릭'

소 리 / 선배님들! 여기서 15분간 휴식합니다! 여기, 빵하고 우유 하나씩 받아주세요~~

우유와 빵을 든 예비군들, 김PD의 차 주변에 아무렇게나 앉아 쉰다.

쫓 된 두사람.

두사람, 일어나지도 못하고 숨죽인채 누워있다. 쭈욱~

47-2

시간 경과. 차 트렁크 위에 쪼르르 놓인 빈 우유곽들... 예비군은 철수한 듯 고요하다.

키스중인 두사람. 어렵사리 하는 키스라 더욱 달콤하다.

S # 48

심천 산업대. 교수 휴게실. 담배연기 자욱하다. 석규와 안교수의 티타임.

안교수 / 강의 해보니까 어때요? 재밌죠?

석 규 / 예..

안교수 / 너무 재밌으면 안돼는데.. 이.. 가르치는거 재미들리면 나중에 아무것도 못해요..

석 규 / ?

안교수 / 편하거든. 말로만 먹고 사니까... 매우 받고..

석 규 / ...

안교수 / 한 몇년 입으로 먹고살면, 아무것도 못해요. 다른건.. 하기가 싫은거지.. 겁도 나고

석 규 / 겁이요?

안교수 / 아. 애들한테 구라만 잔뜩 쳐놨는데. 함부로 못하죠. 애들 무서워서...

석 규 / 네..

안교수 / 개들이 학교에 있을때나 췌자고 선생이지.. 나가면 다 적이예요. 적.

석 규 / ...

안교수 / 아! 그건 그렇고.. 나 부탁이 하나 있어서 부른건데..

자세를 고쳐잡는 석규.

S # 49

단체 사무실. 은숙. 놀란 얼굴(어이없어하는..)로 누군가를 쳐다보고 있다.
커트 넘어가면 반대편에 있는 사람 얼굴. 다름아닌 명희다. 역시 젊고 이쁘다!
한참을 말없이 그대로인 두사람.

은 숙 / 너 혼자니? 지원자가?
명 희 / 네

또다시 정적. 긴장..

은 숙 / 중요한거야. 이거.. 잘 해야되는데... 책 디자인 하는거 해봤니? 너? 잘해?

이때, 안교수, 문교수, 유선생 문열고, 우르르 들어온다. 다들 '어? 명희씨네?' 하며 아는체 한다.

명 희 / 시켜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 들으라는듯이)

얄미워 죽겠다는 은숙의 얼굴.

S # 50

SBC 심천방송국 편집실. 김PD, 편집을 하고 있다. 집중.
썸 41의 공청회 스케치 자료다. 모니터 안의 은숙. 진지하게 발언하고 있다. 멋지다.
이때, 김PD 앞으로 종이컵(자판기 커피)이 쑈~욱 들어온다.

김 PD / 어휴. 고맙습니다.

은숙이다.

은 숙 / 다른 사람 나오는 것부터 하면 안돼요?

김 PD / (웃으며) 왜요? 첩피해요?

은 숙 / 아무래도 좀. 그러네요..

김 PD / 후후.

은 숙 /

김 PD / 근데.. 뭐 안좋은 일 있어요?

은 숙 / 왜요?

김 PD / 좀.. 그래 보여요

은 숙 / 누굴 미워하는게.. 좋은일은 아니죠..

뻘히 쳐다보는 김PD

S # 51

심천 방송국. beta 테입 자료실. 대학의 도서관 같이, 뻘뻘한 테입장들. 미로 같다.

아무도 없는 공간. 은숙과 김PD 뿐이다.

김 PD / 기분전환 시켜주고 싶어요
은 숙 / ...
김 PD / 우리.. 일본 갈까요?
은 숙 / 일본이요?
김 PD / 네.
은 숙 / 지금이요?
김 PD / 아니요. 지금 말고..
은 숙 / 일본 가요?
김 PD / 아니요
은 숙 / 근데 어떻게 가요?
김 PD / 뭘 어떻게 가요? 그냥 가는거지. 같이 가고 싶어요. 둘이..

카! 하염없이 바라보는 눈길. 서로 빨려들어갈 것만 같다.
세상 끝까지 영원할 것만 같은 롱-딤 키스. '아! 당신을 정말로 사랑해요...'

S#52

환경단체 사무실. 자리에는 아무도 없고 안교수가 누군가와 탁구를 치고있다.
한참 뒤 '쿵쿵' 발로 문을 차는 소리 들린다. 하지만 탁구삼매경에 빠져있는 안교수.
또다시 '쿵쿵쿵'
안교수와 치던 남자, 안되겠다는 듯이 탁구채를 내려놓고 나간다. 남자는 다름아닌 석규다.
석규, 문을 여니 명희가 힘겹게 PC를 들고 서있다.

S#53

사무실 안. 석규를 포함한 몇 명, 회의하는 대형으로 앉아있고, 명희는 가져온 PC를 연결하느라 바쁘다. 그러면서도 힐끔힐끔 석규를 훑쳐보는 명희

안교수 / 내용은 여기, 유선생님이 감수해 주실 겁니다. 덕천초등학교 교사시고.. 뭐. 여러 번 하셨으니까 잘 잡아주실거예요.

유선생과 석규. 어색하고도 짧은 눈인사.

안교수 / 일단 뭐.. 만화 교과서니까 애들이 재밌어야 겠지요?
유선생 / 재미도 재미지만, 만화 이전에 교과섭니다. 신중해야죠. 신경쓸 부분이 많을 겁니다.
나중에 자세히 얘기하기로 하죠.

괜히 나섰다가 뿔뿔해진 안교수. '저런 싸가지 없는 놈!'

S # 54

54-1

호프집. 안교수, 문교수, 유선생, 명희. 맥주를 마시고 있다. 문교수 전화받고 있다.

문교수 / 네. 들어오세요. 다 있어요. 여기 (띠리릭. 전화 끊는다)

이윽고, 문 열리며 은숙 들어온다. 등지고 있던 석규, 돌아본다. 은숙이 걸어와 자리에 앉는다.
유선생, 기다렸다는 듯이

유선생 / 그냥 들어오시지. 뭘 다와서 전할합니까?

은 숙 / 네?

유선생 / 그리고, 조교수님, 꼭 문교수님한테 전화하시더라..

유선생의 괜한 심술에 다들 난처한 표정. 이상해지는 분위기

안교수 / 아! 조교수님. 여기.. 지난번에 말씀드린 만화가 박작가님. 이쪽은 같이 활동하시는 조교수님.

석 규 / 안녕하세요. 박필입니다.

은 숙 / 조은숙입니다. (하고는 바로 썬까는 은숙.. 별 관심없다는 듯)

(그러다 갑자기) 근데 지난번에 말씀 안하셨어요. 저한테

안교수 / (뻔뻔한듯) 아~ 말씀 안드렸었나?

은 숙 / 네

뭐야~.. 그 바람에 더욱 썰렁해지는 분위기

54-2

꽤 오랜 시간경과.

화장실에서 나오던 은숙. 들어가려던 석규와 마주친다. 둘다 많이 취해있다.

은 숙 / 저가요.. (이미 꼬부라진 말투다)

석 규 / ?

은 숙 / 화가시라구요?

석 규 / 네? (마찬가지로 취한 말투)

은 숙 / 화가라면서요?

석 규 / 아니요. 화가는 아니고 만화가입니다.

은 숙 / 아~

석 규 / ...

은 숙 / 화가가 아니고 만화~

석 규 / ...

은 숙 / ...

석 규 / 제가 뭐 마음에 안드는거라도 있습니까?

은 숙 / ...

석 규 / ...

은 숙 / 내말을 그렇게 들어요?

신경전을 하듯 서로 꼬라보는 두사람. 둘다 취해서 정상적인 눈깔이 아니다.

S #55

SBC 심천방송국. 사회문화팀 사무실. 김팀장의 데스크 앞.
김PD와 김팀장이 정면으로 쳐다보고 있다. 한동안 아무말 없이 응시하던 두사람.

김 PD / 일단 기획안 올리겠습니다. 검토 먼저 해 주십시오
김팀장 / 김피디. 방송국도 회사야. 당신들 생각처럼 그렇게 허술한데 아냐. 여기.
김 PD / ...
김팀장 / 어느날 갑자기 '일본 가겠다' 그러면 '그래 잘 갔다와라' 하고, 돈 주는덴줄 알아? 여기가?
스케줄대로 움직여. 스케줄대로!
김 PD / 그럼. 국장님한테 직접 올리겠습니다.
김팀장 / 이사람들이 PD 하면서, 못된것만 배웠어.
여기가 무슨 에쓰비에쓰줄 알아?
김 PD / 왜. 에쓰비에쓰 된고, 에쓰비씨는 안 됩니까?
에쓰랑 씨랑 한글자가 그렇게 틀린겁니까?

뭔가 좀 말이 안되는 것 같은데도, 당당한 김PD.
여기가 없는 김팀장. '애 지금 뭐라고 하는거야?'
단호한 표정의 김PD는 눈하나 깜짝 안한다. 사랑에 간댕이가 부은게 틀림없다.

S #56

SBC 본관 로비. 커피를 마주놓고 앉은 김PD와 김PD의 와이프. 같은 방송국 성우다.

와이프 / 무슨 일 있어요? (오! 목소리가 예술이다)
김 PD / 뭘?
와이프 / 이PD가 뭐라고 하던데..
김 PD / 뭘 뭐라고 해? 하여간 그자식은..
와이프 / ...
김 PD / 오늘 녹음있어?
와이프 / 어. 이따 8시. 이PD꺼..
김 PD / 그자식은 왜 꼭 밤에 스케줄을 잡어? 당신도 여기 PD들, 급신거릴거 없어.
대충 해주고 들어가.
와이프 / 당신 왜그래? 말하느게. 자기는 PD아냐?
김 PD / PD는 애 걱정 안하냐?
와이프 / ...
김 PD / 그리고.. 여기 PD도 PD냐?

남편의 비아냥에 마음 상한 와이프. 화난 얼굴로 노려본다.

S #57

57-1

도로. 석규, 운전중 하고가다 누굴 본 듯 차를 갓길에 세운다.
'뽕뽕' 크락션을 울리자 돌아보는 여자. 명희다.

명희는 사무실에 뭘 더 갖다놓으려는 듯 무거워 보이는 짐을 들고있다. 가슴기다.

57-2

석규와 명희. 함께 차를 타고 가고있다. 말은 없지만, 싫지 않은듯 한 공기.
아! 날씨 좋~다!

S# 58

단체 사무실. 은숙 혼자 뿐이다.
명희의 새 책상을 요리조리 뜯어보는 은숙. 마땅치 않은, 아니꼬운 눈초리다.
이때, 갑자기 문열고 들어오는 명희. 나쁜짓을 하다가 들킨듯 움찔하는 은숙.

명 희 / 안녕하세요
은 숙 / 어.. (괜히) ... 너는 뭐 이사 왔니? 뭘 해도 이렇게 거창하니?
석 규 / ... (뒤따라 들어오다 은숙을 보고, 어색하게) ... 안녕하세요
은 숙 / (역시 어색한 표정) 네. ...안녕하세요

어색한 인사. 불편한 두사람

S# 59

59-1

가슴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수증기. 고요한 오후다.
명희는 리모콘으로 가슴기의 분무량을 조절하고 있다. ‘뽁뽁’ 소리에 맞춰 수증기 분무량이 변한다.

각자 본인의 책상에서 뭔가를 하고있는 석규와 은숙. 유선생.
공간은 명희의 ‘뽁뽁’ 소리뿐이다.

59-2

무언가를 신중히 검토하던 석규. 문득 하던일을 멈춘다. 잊고있던 무언가가 갑자기 ‘꽝’ 하고 머리를 때린듯 한 표정. 석규, 한동안 미동조차 없다가 서서히 고개를 들어 은숙을 본다.

오 마이갓!! 은숙은 이미 석규를 응시하고 있다. 미동조차 없이 석규를 쳐다보고 있는 은숙.
석규 역시, 시선을 거두지 않는다. 끝날것 같지 않은 팽팽한 긴장.
세상의 모든 소음이 깊은 무덤속으로 침전하는 느낌이다.

아! 본능적으로 서로를 알아 본 순간.. 불행의 시작!..

묘한 분위기를 느낀 유선생과 명희. 의혹의 눈길로 두사람을 관찰한다.
유독, 석규의 얼굴에 주목하는 유선생.

S#60

여관. 이미 섹스를 마친 은숙과 김PD. 창밖으로 바다가 보이는 모텔 3층이다. 대낮. 알몸인 채, 바둑을 두듯 침대위에서 마주보고 앉아있다.

은 숙 / 일본이 그렇게 먼 곳은 아니죠?
 김 PD / 거리상으론 그렇죠..
 은 숙 / 그럼 가지마요. 무리하지 말아요
 김 PD /?...
 은 숙 / ... 완전히 도망칠 수 없다면 의미가 없어요
 김 PD / 무슨일 있어요?
 은 숙 / 무슨일이 있다는게 아니구요, 의미가 없다가구요
 김 PD / ...
 은 숙 / ...
 김 PD / 왜 그래요? 무슨일 있어요?
 은 숙 / 영호씨!
 김 PD / ...
 은 숙 / 무슨일 없구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김 PD / ...
 은 숙 / (말없이 김PD의 머리를 끌어안으며) 가요. 가보면 의미가 있을지도 모르죠..

은숙, 머리가 복잡한 모양이다.

S#61

61-1

무지하게 높은 고층의 스카이라운지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창밖으로 야경이 근사하다. 은숙과 김PD. 은숙은 어느새 기분이 풀린 모양이다.

긴 미소를 주고받는 두사람. 약간 속스럽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한..

이때, 핸드폰 진동음 '드르르르' 울린다. 김PD의 핸드폰이다. 발신자를 확인하는 김PD. 받기를 주저한다. 계속되는 '드르르르' 김PD, 어쩔 수 없이 전화받는다.

김 PD / 여보세요. 어.. 어.. 밖이야 지금.. 들어갈텐데 좀 걸릴것같애.. 어.. 먼저 퇴근해.. 어.

전화 끊는 김PD. 은숙, 의아한 눈으로 본다.

은 숙 / 애인이예요? ('설마?'하는 마음으로 농담처럼)
 김 PD / ...
 은 숙 / 뭐예요? ... 애인이예요? (조금 진지해지며)
 김 PD / 와이프입니다
 은 숙 / 와이프요?
 김 PD / ...
 은 숙 / ...
 김 PD / 저 결혼한거 모르셨어요?
 은 숙 / ...
 김 PD / ...

은 숙 / 아뇨. 결혼한 거 알았어요.
김 PD / ...
은 숙 / 근데.. 와이프도 있었어요?
김 PD / 네?

'당연한거 아냐?' 심각한 상황에서도 병찝 김PD. 반면 은숙은 겁나 심각하다.

61-2

다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창밖 야경은 여전히 아름답다.
엘리베이터 안에는 은숙, 혼자 뿐이다.

61-3

스카이라운지의 남자 화장실. 김PD, 오줌을 누고있다. '휴우~' 땅이 꺼질 듯 한숨을 내쉰다.

S # 62

62-1

심천 산업대. 석규의 연구실. 창으로 별이 눈부시게 들어오고 있다. 아무도 없는듯 하다.

책상위의 석규 핸드폰 울린다. 창가에 있던 누군가가 다가가 핸드폰을 들여다 본다. 명희다.
핸드폰 액정의 발신자 정보. '개새끼남' 이 깜박거린다.

62-2

시간경과. 석규 연구실안

석 규 / 이따 만나기로한 친구분은 저회판가요?
명 회 / 아니요. 교회미술과예요.
석 규 / 교회미술과요?
명 회 / 네. 교회음악 처럼 교회미술도 따로 있거든요.
석 규 / 아..
명 회 / 제가 거기 1년 다녔었거든요.
석 규 / 아..
명 회 / 근데.. 저는 안되겠더라고요.
석 규 / 왜요?
명 회 / 저는 예수님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닌가봐요
석 규 / ...(괜히 끄덕끄덕)
명 회 / ...
석 규 / ...(계속 끄덕끄덕)
명 회 / ...
석 규 / 저.. 명희씨
명 회 / 네?
석 규 / 조은숙 교수님.. 명희씨네 교수님 맞아요?
명 회 / (석규를 쳐다본다)
석 규 / 그분. 교수 맞아요?

난데없는 은숙 얘기에, 괜히 쳐다보기만 하는 명희. 대화가 끊기는 두사람..

S#63

식당. 낮. 식사하고있는 은숙과 유선생, 안교수.

안교수 / 몰랐어요?

은 숙 / 네..

안교수 / 만화창작과 초빙이예요. 전문인 초빙 케이스.. 만화가 박필 모르세요?

은 숙 / ...

안교수 / 하긴 뭐. 만화 안보는 사람들은 모르지

은 숙 / ...

안교수 / 에이그.. 세월이 좋아서 교수지. 사실 만화쟁인거지..

은 숙 / 뭐 하나만 잘하면 그게 교수죠 뭐. 요생

안교수 / 그러니까요. 후후

가만히 듣고있던 유선생. 뜬금없이

유선생 / 나 근데.. 그 박선생.. 아는 사람 같어요. 옛날에 본 얼굴이야..

심장이 쿵! 하는 은숙. 오! 제발 아니기를..

S#64

환경단체 사무실. 낮.

사무실엔 석규, 유선생 뿐이다. 각자 본인의 자리에 있다.

석규는 만화 원고를 그리고 있다. 그림에 집중하고 있는 석규.

반대편에서 유선생이 그런 석규의 얼굴을 주목하고 있다. 그의 손엔 석규가 건네준 만화원고가 들려져있다.

문득 하던일을 멈추고, 고개를 드는 석규. 그바람에 유선생과 시선이 마주친다.

유선생 / (빨쭉한듯 머뭇거리다가, 공연히 씨익 웃는다)

석 규 / ... (미소 후, 다시 고개를 파묻는다)

유선생 / ...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다시 석규를 쳐다보는 유선생.

그의 관찰이 한참이나 계속된다.

S#65

SBC 심천방송국. 김PD의 데스크.

김PD, 어딘가에 전화를 하고 있다. 상대방이 전화를 안받는 모양이다. 짜증스런 얼굴.

결국 음성메세지를 남기는 김PD.

김 PD / 은숙씨! 기분 안좋은거 알아요. 제가 은숙씨한테 실례했어요. 미안합니다. 하지만 이런식으로 저 피하시는거.. 저한테도 실례하시는 거예요. 메시지 들으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이때 저쪽에서 김PD 부르는 소리.

국 장 / 김PD! 들어와봐!

김 PD / (시선은 국장을 본 채, 수화기에) 무리한 부탁,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다릴게요. (딸깍)

S#66

SBC 심천방송국. 국장실. 국장 데스크 앞에 서있는 김PD.

국 장 / 김PD! 너 오바야! 지금.

김 PD / 오바 아닙니다. 국장님!

국 장 / 오바가 아니야? 그럼 육바냐?

김 PD / ... 오바라 그러셔도 할 수 없습니다. 저 오바하겠습니다.

국 장 / 야! 이거 오바도 아냐.. 자료테입. 다 있는데 왜 일본까지 찍으러가냐?

김 PD / 그거 다 3.4년 된 자료입니다. 시청자 우롱할 수 없습니다.

국 장 / 너. 뭔가 꿩꿩이가 있어..

김 PD / 국장님! ..

국 장 / 나 책임 못진다.. 나가봐

김 PD / 국장님! .. 저도 이번엔 마음 독하게 먹었습니다. 저를 어떻게 보시는지는 상관 없습니다만..

국 장 / ?...

김 PD / 이번만큼은.. 방송인의 양심! 지키고 싶습니다.

국 장 / 지랄하고 있네..

혁. 방송인의 양심이라~. 별의별 생각이 다 교차하는 국장의 얼굴.

S#67

67-1

다시, 김PD의 데스크. 똥썩은 표정으로 돌아오는 김PD
걱정스러운 듯이 김PD의 얼굴을 살피는 조연출

조연출 / 켈..참으세요?

김 PD / 이PD도 방송 계속할꺼면 정신무장, 단단히 해요. 데스크에 욕먹는게 진짜 PD야!

무표정한 얼굴로 반응하는 조연출.

67-2

시간경과. 은숙의 메시지를 듣고있는 김PD.

은 숙 / (화가 단단히 난 목소리만)

전화 하래놓고 안받는건 뭐예요? 왜이렇게 날 비참하게 만들어요? 네?

어떻게 내 앞에서 와이프 전화를 받아요? 내가 안보여요? 내가 투명인간 이예요?

S # 68

밤. 심천 시내 일각.

이빠이 취한 은숙. 택시를 잡고 있다. 제정신이 아니라 택시 잡는게 쉬워보이지 않는다.

이윽고, 택시 한대 와 서면, 은숙 타려한다. 택시에 타고있던 사람, 내리면, 다름아닌 유선생이다.

유선생 / 조교수님 ! 괜찮으세요? (부축하며)

은 숙 / 어! 유선생님~

유선생 / 택시 잡고 있었어요?

은 숙 / 네.

유선생 / 사람 불러놓고 그냥 가는게 어딴습니까?

은 숙 / ?

유선생 / 기억도 안나죠?

술에 찢어 비몽사몽인 은숙.

S # 69

69-1

근처 카페.

병맥주를 마시고 있는 유선생. 은숙은 맞은편에 앉아있다. 서로 별 말이 없다.

은숙의 핸드폰에서 '메시지도착 알림소리' 규칙적으로 난다.

유선생 / 메시지 왔네요

은 숙 / 알아요 (술이 덜 깬 말투 - 계속)

유선생 / ...

은 숙 / 듣고 싶지 않아요

유선생 / 그럼. 꺼놔요

은 숙 / ...

유선생 / ...

은 숙 / 왔다는건 알아야죠. 꺼놓으면 잊어버리잖아요

69-2

메시지 왔다는 소리 '뚜뚜'

은 숙 / 뭣! (핸드폰을 힐끗 보며)

유선생 / 제가 아는사람 입니까?...

은 숙 / 뭣!

유선생 / ...

은 숙 / ...

유선생 / ...

은 숙 / 휴~

유선생 / ...

은 숙 / 유선생님.. 저. 유선생님 좋아해요

유선생 / ?

은 숙 / 유선생님은 참 순수하세요. 정직하고..

유선생 / ...

은 숙 / 나는 숙이는 사람. 싫어요. 그런 사람보다 유선생님이 훨씬 좋은 분이예요...
유선생 / 은숙씨!
은 숙 /?...
유선생 / 은숙씨도 좋은 사람이예요..

슬며시 손잡는 두사람. 감동한 유선생의 눈빛과, 술에 찼어 맛이 간 은숙의 눈빛. 오간다.
한동안 바라본 후, 거의 동시에

유선생 / 사랑합니다
은 숙 / 사랑해요

휴~. 애네들 어쩔려구 ...

S#70

아침. 여관. 창으로 별이 들어오고 있다.
잠에서 깬 유선생. 옆에는 은숙이 알몸으로 자고 있다. 햇빛을 받아 더욱 관능적인 포즈다. 은숙의 몸을 한동안 내려다 보는 유선생.
그때 화장대, 은숙의 핸드폰에서 어젯밤의 그 '메시지 알림소리' 난다. '뚜뚜'
문득 메시지의 남자가 궁금해진 유선생. 은숙의 몸을 넘어 핸드폰을 집으려 한다.

이때, 갑자기 표독스런 은숙의 목소리. 자던 모습 그대로 목소리만.

은 숙 / 잠깐! 스톱!
유선생 / 어! 일어났어요?
은 숙 / 스톱! 얼굴 돌려요!
유선생 / 네?
은 숙 / 얼굴 돌려요.
유선생 / (고개 돌려 벽 본다)
은 숙 / 나 지금 갈꺼니까 그때까지 가만있어요..
유선생 / 아니.. 조교수님! (하면서 조금 움직인다)
은 숙 / 움직이지 말라구!!

하염없이 벽보고 있는 유선생.

S#71

71-1

단체 사무실 안. 별이 잘 들어오는 오후다. 은숙과 유선생 뿐이다.
책상에 앉아 머리를 감싸고 있는 은숙. 어젯밤의 숙취가 여전한 모양이다.

은숙. 도저히 못 참겠다는듯이 일어나며

은 숙 / 저 약좀 사올께요.

은숙, 머리를 감싸며 문열고 나가려는데, 동시에 들어오는 석규. 둘의 눈이 마주친다. 서로를 의식하는 두사람.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흐른다.

그 순간을 놓치지 않는 유선생의 예리한 눈.

71-2

석규, 무언가에 열중하고 있다. 유선생, 자리에 앉아 그런 석규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다. 그러다가

유선생 / 앗차! 깜박했네.. 저 박선생님. 혹시 조교수님 핸드폰 번호 아세요?

석 규 / ?

유선생 / 어.. 뭘 좀 도와야되는데, 조교수님 나간김에 부탁 좀 하려고요.. 조교수님 번호... 아시죠?

석 규 / 저기 있잖습니까 (한쪽 구석의 화이트보드를 가리키며)

유선생, 석규가 가리키는 곳으로 시선을 옮기면, 화이트보드 오른쪽 구석에 '회원들 비상연락망'

S#72

다시, 단체 사무실. 은숙은 여전히 숙취 때문에 괴로운 듯.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명희는 리모콘으로 가습기의 분무량을 조절하고 있다. '뽁뽁' 리모콘 소리 뿐이다.

은숙, 그 소리가 신경쓰이는 듯

은 숙 / 그것좀 안하면 안되니? 머리아파 죽겠다. 애

뽁뽁해진 명희. 멈춘다.

은 숙 / 그리고, 거기서 무슨 냄새 나는 것 같애. 너, 그거 집에서 쓰던거야?

명 희 / 네..

은 숙 / 그거 잘 씻었어? 여기 와서?

명 희 / 네..

은 숙 / 근데 무슨 냄새나는 것 같애. 썩은냄새 같은거..

명희의 얼굴이 점점 붉어진다. 남자 회원들, 조심스럽게 명희를 주목한다.

은 숙 / 가습기. 그게 잘 안씻으면 세균덩어리야. 저게 다 세균 날리는 거라구..

오! 더 이상의 모욕은 없다. 치욕의 눈물이 빠져나오는 명희.

은 숙 / (다른 사람들에게) 무슨 냄새 안나요? 저거 툰 다음부터?

울음을 꼭 참던 명희, 급기야 손으로 입을 막으며, 사무실 밖으로 뛰쳐 나간다. 그와 동시에 버럭!

석 규 / 그만하세요. 좀!! (참다참다 폭발한 듯, 은숙을 쏘아본다. 무섭다)

깜짝 놀란 은숙. 아무 대꾸도 못한다. 마찬가지로 놀란 유선생. 문교수. 안교수. 사무실엔 숨소리조차 없다.

S#73

73-1

저녁. 심천 하천 둔치
은숙. 볼보 옆에 팔짱을 끼고 서있다. 한참후. 저쪽에서 진입하는 갤로퍼 보인다.
엄청난 모래바람을 일으키며 은숙쪽으로 오는 갤로퍼.

73-2

하천을 보고 서있는 은숙. 옆에서 종이컵이 쑥 들어온다. 은숙은 돌아보지 않은채로 받는다.

석 규 / 아니.. 다리는 어떻게 된거야? 못 알아봤잖아..

석규다. 은근슬쩍 말을 놓으며 분위기를 살피는 석규. 그러나 돌아오는건 알짬없이 쌀쌀맞은 눈초리다.

은 숙 / 너무 리내는거 아니예요? (냉랭하게)
석 규 / (분위기를 파악한듯) 무슨 말입니까?
은 숙 / 명회 말이예요. 보통에 아니예요. 개.
석 규 / 저. 명회씨랑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상하게 연결하지 마세요.
은 숙 / 내가 연결하는거 아니예요. 그쪽들이 이미 연결돼 있는거지.

73-3

시간경과. 석규, 서있고 은숙은 차 안에 있다. 출발 직전인듯. 은숙, 한동안 말없이 앞만 응시하다가

은 숙 / 아는 사람 맞는거 같아요?
석 규 / 모르겠는데요..
은 숙 / 유선생. 허튼소리 할 사람 아니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본 적 있을꺼예요..
석 규 / ...
은 숙 / ...
석 규 / 모르겠네요.. 저는
은 숙 / 어쨌든 그사람 앞에서 신경 좀 쓰세요.
석 규 / 뭐 죄진거 있습니까?
은 숙 / 그럼.. 죄진게 없나부죠?

석규를 똑바로 쳐다보는 은숙. 그런 은숙의 눈길에 당황하는 석규.
예누리없이 부응~ 출발하는 은숙.

S#74

아침. 심천방송국 주차장. 취재차량으로 걸어가는 조연출 김장렬. 마침 마주오던 김PD 와이프, 조연출을 보며 아는체를 한다.

와이프 / 김피디님!
 조연출 / 어? 사모님!
 와이프 / 촬영 나가시나 봐요?
 조연출 / 네.
 와이프 / 바쁘시죠?
 조연출 / 아니에요. 녹음 있으세요?
 와이프 / 네. 간단한거요.
 조연출 / 아~
 와이프 / (주위를 둘러보며) 이 사람은요?
 조연출 / 오늘 안 나가신다네요. 저보고 그냥 갔다오라고..
 와이프 / 왜요?
 조연출 / ...
 와이프 / ?
 조연출 / 요즘.. 데모 중이시거든요..

와이프 - '영문을 알 수 없다' 는 표정.

S#75

심천방송국. 사회문화팀. 김PD의 데스크. 와이프는 김PD의 의자에 앉아있다. 남편을 기다리는 그녀. 이때, 김PD 책상위의 핸드폰 울린다. 잠깐 망설이다 받는 와이프

와이프 / 네. 김영호 PD 전합니다. (오훗! 목소리 캡!)
 목소리 / ...
 와이프 / 여보세요? 자리에 안계셔서 대신 받았습시다.
 목소리 / ...
 와이프 / 여보세요?
 목소리 / 거기 방송국 인가요? (앗! 은숙이다!)
 와이프 / 네. 그런데요..
 목소리 / 멀리 가셨나요?
 와이프 / 아니요. 방송국 안에 계신 것 같은데요.
 목소리 / ...
 와이프 / 여보세요?
 목소리 / ...
 와이프 / 여보세요?

순간 딸깍 끊어지는 전화. 미심쩍은 와이프.

S#76

방송국 편집실, 한 칸에 마련된 컴퓨터. 화투장이 펼쳐진 화면.

'고도리' 삼매경에 빠져있는 김PD. 지하 PC방에 죽치고 앉아있는 아저씨들과 똑같은 모습이다.

순간, 키보드 위로 핸드폰 하나가 제멋대로 '툭' 던져진다. 깜짝 놀라는 김PD. 자신의 핸드폰이다. 뒤돌아보면.. 와이프, 어느새 와있다.

와이프 / 지랄들 하고있어. 진짜 (냉랭, 조소..)

획. 뒤돌아 나가는 와이프. 범쳐있던 김PD. 핸드폰을 열어 문자 메시지를 확인한다.

< 음성 들었어요. 영호씨가 잘못된 건 없어요. 절망적이지만.. 사랑해요. -은숙 >

딱 걸린 김PD. 쫓됐다!

S#77

77-1

저녁. 모텔

은숙과 김PD. 오랜만의 해후다.

은숙은 침대에 걸쳐 앉아있고, 김PD는 뺄뺄하게 서있다. 별 얘기없이 탄곳을 바라보고 있는 두사람.

은 숙 / 왜 일루 데리고 왔어요?

김 PD / ...

은 숙 / 여기서 뭐할건데요?

김 PD / 그런거 아니예요

은 숙 / 근데 왜 일루 데리고 와요? 우리가 지금 이럴 분위기예요?

김 PD / ...

77-2

시간경과. 상황은 그대로다.

은숙, 심사숙고해서 준비한 말을 신중하게 내뱉는다.

은 숙 / 내 다리 왜 이렇게 됐는지 궁금하지 않아요?

김 PD / ...?

은 숙 / ...

김 PD / ...

은 숙 / 옛날에... 남자를 잘못 만나서 이렇게 됐어요.

김 PD / ...

은 숙 / ...

김 PD / ...

은 숙 / 누구나 상처는 있잖아요.. 근데 저는 한번 삐딱일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김 PD / ...

은 숙 / 하루에도 수백번, 수천번씩...

김 PD / ...

은 숙 / 아무한테도 얘기 안했어요..

김 PD / ...

은 숙 / 이거 고쳐줄 수 있는 사람 만나면 얘기하려고...

은숙, 어느새 울먹인다.
김PD, 자기도 모르게 다가와 껴안아준다. 진심이 담긴 두사람의 포옹 계속된다.

S#78

78-1

일요일. 유선생네 초등학교 테니스장. 초등3학년 정도의 아이가 코트 밖에 앉아 볼보이를 하고있다.
녀석 옆으로 테니스공이 획 지나가지만 녀석은 딱짖에 정신팔려 있다.

유선생 / 야! 반장! (목소리만)

그 소리에 정신을 차린 녀석. 공을 주으로 뛰어간다.
누군가와 테니스 시합중인 유선생.

78-2

시합이 끝난듯 짐을 챙기는 두사람. 한명은 유선생의 중,고등학교 동창, 주홍이다.

유선생 / 야! 너 혹시 박필이라고 아냐?
주 홍 / 그게 뭔데?
유선생 / 아이~. 사람 이름인데.. 우리 동창중에 있나? 박필이라고?
주 홍 / 박필?
유선생 / 어..
주 홍 / 모르겠는데..?
유선생 / 그래?
주 홍 / 만화가는 있지. 박필.. '천님왕 고돌이'..
유선생 / ... 박석규는?
주 홍 / 박석규?
유선생 / 어..
주 홍 / ... (긴가민가 하는 표정)
유선생 / 알어?
주 홍 / 글썸...
유선생 / 아는 애야?
주 홍 / 이름은 들어본 것 같은데..
유선생 / 그래?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변하는 유선생.

유선생 / 얼굴 한번 볼래?
주 홍 / 내가 왜?

S#79

저녁. 단체 사무실 복도. 사무실로 향하는 유선생과 주홍.
문 열고 들어가면 은숙, 혼자 있다.
유선생의 인사를 대충 받는 은숙. 서둘러 나간다. 다분히 의도적으로 보인다.

주홍은 '오호! 죽이는데?' 하는 얼굴로 은숙의 뒷모습을 쫓는다.

주 홍 / 죽이는데?
유선생 / (꽃!) 죽이냐?
주 홍 / 누구데?

유선생. 대답을 조금 뜯들이더니 새끼손가락을 펼쳐서 까딱댄다. 음흉한 미소. 킬킬대는 두사람.
그러나 기분이 썩 좋지않은 않은 유선생.

유선생 / 야! 오늘 안오나부다

S#80

SBC 심천방송국. 복도 게시판. 몇몇 사람이 게시판을 올려다보고 있다.
게시판에 붙어있는 A4용지 게시물. 인사발령 공고다.

< 인사발령 (7/2 일자 시행) >

피발령자 -김영호

발령전 (現)

발령후 (後)

SBC TV 사회문화팀 (제작PD / 6급) --> SBC 라디오 편성국 (사무 / 6급)

S#81

심천방송국 로비. 마주 앉아있는 김PD와 와이프. 분위기 썰렁하다.
아무 얘기 없이 심각한 두사람

김 PD / ...
와이프 / ...
김 PD / 휴~ 인제 어떡할거냐?
와이프 / (기다렸다는 표독스럽게)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 내가 짤렸어?
김 PD / 휴~ (땀이 쫄릴 듯이)
와이프 / 골고루 한다. 골고루 해.. 미친놈.
김 PD / ...

무섭게 쏘아보는 와이프. 김PD.. 비참하다.

S#82

82-1

밤. 단체 사무실.

텅빈 공간에 은숙과 유선생, 거리를 두고 생뚱맞게 서있다. 다른 사람은 없다. 분위기 안좋다.

유선생 / 저한테 왜 이러시는 겁니까? 요즘

은 숙 / 뭐가요?

유선생 / 제가 뭐 잘못했습니까? 저한테 뭐 빠진거 있어요?

은 숙 / (퍽!) 제가 왜 유선생님한테 빠져요?

유선생 / 근데 왜 그래요?

은 숙 / 필요? 왜 이러시는 건데요? 지금.. (짜증)

유선생 / 휴~ (한숨)

은 숙 / ...

유선생 / ...

은 숙 / ...

유선생 / 그사람 때문이에요?

은 숙 / ?..

유선생 / 그사람 때문이에요?

은 숙 / 누구요? 누구 때문에 제가 떨 어졌는데요?

유선생 / ...

은 숙 / 네?

유선생 / ... 박작가요.

은 숙 / 네?

유선생 / 은숙씨. 박작가랑 사귀니까?

은 숙 / (어이가 없어하며) 무슨 소리예요? 왜 박작가를 나하고 연결시켜요?

유선생 / 내가 연결시키는거 아닙니다!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단호히)

82-2

잠시후. 사태를 수습하려는 듯

은 숙 / 유선생님..

유선생 / ...

은 숙 / 저 그사람이랑 아무것도 없어요.. 그사람보다 유선생님이 훨씬 좋은 분이예요.. 근데 왜 그
세요..?

유선생 / ... (침묵)

은 숙 / 네?

유선생 / ...

은 숙 / 유선생님!

유선생 / 그때도 지금이랑 똑같이 말했어요. 정말 신기하네요.. (빈정, 싸늘..)

S#83

저녁. 시내의 한 고깃집. 유선생과 주홍, 석규의 술자리다. 아무래도 어색한 분위기다.

어색함을 깨려는 듯 어쩔수 없이 잔을 들이키는 세사람.

그러나 원샷을 하고나서도 세사람은 여전히 어색하다. 서둘러 잔을 채우는 사람들...

S # 84

84-1

고깃집 화장실. 석규, 오줌을 누고있다. 이때 주홍, 문열고 들어온다. 가벼운 눈인사.
석규의 옆칸으로 가 오줌을 누는 주홍. 한동안 말없이 오줌 누는 두사람. '쫄쫄' 오줌 소리만..
이윽고 석규, 바지를 추스리며 나간다. 또한번의 가벼운 눈인사.

혼자 남는 주홍. 석규가 사라진 곳에 시선을 멈춘채 계속 볼일을 본다.

84-2

자리로 와 앉는 석규. 혼자 앉아있던 유선생에게

석 규 / 친구분이 인상이 참 좋으시네요.
유선생 / 그래요? ... 낮이 많이 익나부죠?

석규, 유선생을 쳐다본다. 사람좋은 미소로 석규를 응시하는 유선생.
웬지모를 긴장감 약간..

S # 85

85-1

다음날 낮. 유선생네 초등학교 교실안. 방학을 했는지 텅 비었다. 아무도 없는 교실에 핸드폰 벨이 울린다. 유선생 책상위의 핸드폰이다. 벨, 계속 울려대지만 여전히 아무도 없다. 칠판의 글씨

< 개학일 : 9월2일 (월요일) 아침 8시 30분 >

89-2

시간 경과. 텅빈 교단에 서서 통화하고 있는 유선생.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주홍이다.

유선생 / 확실해?
목소리 / 어..
유선생 / 근데 왜 앨범엔 없었지?
목소리 / 개가 아마 전학 갔을거야.. 1학년때.. 사고치고..
유선생 / 사고?
목소리 / 야! 우리 1학년때 3학년 남자 한명 죽은거 생각나나?
유선생 / ...
목소리 / 칠성수영장 알지?.. 거기서 뇌진탕으로 죽었잖아.. 3학년 남자. 기억안나?
유선생 / 나는거 같애
목소리 / 그때 개가 거기에 있었을꺼야.. 아마
유선생 / 누가?
목소리 / 아이.. 박석규
유선생 / 왜?
목소리 / 개네 형이 3학년 짱이었는데.. 죽은애랑 친구였거든. 둘다 진짜 장난 아니었다...
맨날 같이 다니고.. 박석규도 지네 형뻘에 완전 양아치였지.. 개네형 얼굴보면 알꺼야. 너도

유선생 / 그래서?
 목소리 / 그래서.. 개 죽는바람에 박석규랑 개네형이랑 다 전학갔어. 아! 여자에도 한명 있었다.
 유선생 / 여자애?
 목소리 / 어.. 1학년짜리 양아치년 하나 있었어. 최은숙인가? 최은숙인가..
 유선생 / 최은숙?
 목소리 / 어.. 그년도 진짜 양아치였다. 석규네 형 짝따구였을걸..아마? 개 빠구리 뛰는거 애들이 다 알았어. 그때.. 박석규랑 같은 반이었을걸.. 둘이도 몇번 했을텐데...
 유선생 / ...
 목소리 / 대단하지 않냐? 중1들이?... 그년도 얼굴보면 알꺼야.. 아마.
 유선생 / 최은숙?
 목소리 / 아이.. 몰라.. 최은숙인지.. 최은숙인지...

쇼킹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유선생은 통화 내내 차분하다.
 통화 도중 툴툴히 통화내용을 칠판에 낙서하는 유선생. 낙서지만 한자한자 붓글씨를 쓰듯 정성들여 쓴다. 선생답게, 유선생답게 잘 쓴 글씨.. 낙서의 내용은 이런것들이다.

< 칠성수영장. 박석규. 양아치. 최은숙?. 최은숙? >



S # 86

낮. 커피숍 안. 긴장한 채로 상대방을 응시하고 있는 은숙.
 반대편의 사람으로 커트 넘어가면, 다름아닌 김PD의 와이프다. 냉랭하다.

긴장. 또 긴장..
 아무말 없이 서로를 응시하는 두사람. 둘 다 눈 하나 깜박하지 않는다.
 순간.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듯 눈을 깜박이는 은숙 (우스꽝스러워야 한다).
 그 위로 기다렸다는 듯이 나오는 김PD 와이프의 멘트

“당신이 혹시 그사람을 가져가게 된다면, 그건 내가 즐수있는 가장 가혹한 형벌이라는걸 기억해요”

오! 그녀의 목소리, 대사.. 정말 예술이다!!

S # 87

시간경과. 커피숍 주차장. 김PD 와이프, 차빠러 걸어간다.
 차에 거의 다다랐을 무렵 차 앞유리에 끼워진 메모를 발견하는 김PD 와이프.
 ‘뭔가 하고’ 접혀진 메모를 펼치면

“똑같은 염료로 염색해도 나일론에 하는거랑 실크에 하는거랑 완전 다릅니다.
 염색은 제가 전문이니 저한테 맡겨보시죠”

S#88

심천 라디오 편성국. SBC TV 방송국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복도 벤치. 은숙과 김PD, 종이컵을 들고 앉아있다. 대화는 없지만 뭔가 심각한 듯

김 PD / ...
은 숙 / ...
김 PD / 어떻게 됐어요?
은 숙 / (딱! 웃고는) 뭘 어떻게 돼요?
김 PD / 뭐래요?
은 숙 / (한심한 듯) 뭘 뭐래요?...
김 PD / ...
은 숙 / 근데, 목소리가 뭐 그렇게 좋아요? 대사도 완전 영화대사고..
김 PD / (히죽히죽대며) 아~ 성우잖아요.. 목소리 하나는 죽이죠.. 무슨 말을 해도 멋있게 들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스타일이예요..

분위기 파악 못하고, 와이프 자랑하는 김PD. 휴~
아무말 없이 뚫어져라 김PD를 쳐다보는 은숙. 김PD 뒤늦게 반성하는 얼굴이다.
은숙, 고개를 돌려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은 숙 / 근데.. 여긴 왜 방송국 안에 안있고 따로 있어요? 사무직이라 그런가?
김 PD / ...
은 숙 / (시시하다는 투로) 여긴 완전히 그냥 회사같네.. 사람들도 다 회사원같고..

금새 시무룩해진 김PD. 그 위로 은숙의 목소리

“PD같이 생긴 사람은 우리 영호씨밖에 없네...”

착한 은숙. ^_^*

S#89

89-1

단체 사무실. 테이블에 모여앉아 회의중인 회원들. 모두 석규의 만화원고를 한뭉치씩 들고있다.
유선생, 발언한다. 석규가 표적이 된다.

유선생 / 좋습니다. 재밌고, 흥미롭고.. 다 좋은데요.. 처음 의도랑 점점 멀어지는 느낌입니다.
만화지만 교과서입니다. 분명히 교과서예요.. 짹짹대며 한번 읽고마는 만화책이 아니란 겁니다.

다들 동의하는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의미없이 끄덕이는 고갯짓. 이때 반론이 제기된다.

은 숙 / 어떤 목적의 교과서인가도 생각해 봐요. 이 책은 정보 전달이 목적은 아니잖아요?
애들한테 우리마을의 풀, 벌레, 꽃, 이런것들하고 친해지게 하려는게 목적인데, 그렇다
면 저는 별 문제 없다고 보는데요?

또다시 꼬덕이는 사람들..

유선생 / 중요한건 책을 만드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책을 자세히 한번 봐 보세요. 정작 환경에 대한 애정이나 고민은 없습니다. 그냥 애들 만화책 이예요

석 규 / 저.. 애정이 부족하다는 지적은 인정합니다. 제가 원래부터 환경에 관심이 많았던것도 아니었고...

유선생 / 관심이 없는데 왜 여기 제신거예요? 뭐 다른거에 관심이 있는 겁니까?

싸~ 해지는 분위기. 무안한 석규와 사람들.. 오히려 가장 긴장하는 은숙. 분위기를 예의주시 하다가

은 숙 / 관심이 없으면 의미가 없는게 우리일이예요. 그건 유선생님이 맞는 말씀이예요

슬쩍 발을 빼며, 분위기를 수습하는 은숙. 어느누구도 대꾸조차 할 수 없이 냉랭하다.

89-2

시간경과. 가슴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수증기. 썰렁한 분위기, 여전하다.

89-3

시간경과. 원고를 그리고 있던 석규, 책상위로 종이컵이 쭈욱 들어온다. 고개를 드는 석규. 유선생이다. 긴장속에 지켜보는 사람들

유선생 / 아까 일 사과드립니다. 제가 말이 심했습니다.

석 규 / 아닙니다. 맞는 말씀인데요.. 뭐

커피를 놓고 돌아서는 유선생. 그러다 문득 뒤돌아보고는

유선생 / 저.. 근데.. 박선생님! 혹시 청주 서중학교 나오지 않으셨어요?

석 규 / (음찹) 네?

유선생 / 청주서중 나오셨죠?

석 규 / 아니래요

유선생 / 아니예요? 청주서중 35회 아니예요?

석 규 / 네..

유선생 / 아니.. 중간에 전학 가신건 아는데, 쯤 다니셨죠?

석 규 / (웃으며) 아니예요..

겁나 긴장하는 은숙. 둘의 대화에 촉수를 곤두세운다.

유선생 / 은숙이라고 모르세요?

석 규 / 누구요?

유선생 / 은숙이요.. 여자애..

흠!! 심장이 멎을것 같은 은숙. 자기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며

은 숙 / 아니, 왜 저를 연결시키고 그러세요?

젠 또 왜저래? 모두들 은숙을 주목한다. 한동안 pause. 뽀뽀한 은숙..

유선생 / (은숙에게 미소를 보내며) 아니.. 조교수님 얘기 아니예요..

석 규 / ...

유선생 / (다시 석규에게) 모르세요? 최은숙? 1학년때 같은반 이었을텐데..

석 규 / (웃으며) 당연히 모르죠. 그 학포 만나왔는데..

유선생 / 그래요?

석 규 / ...

유선생 / ...

석 규 / ...

유선생 / 맹세할 수 있습니까? (갑자기 진지하게)

석 규 / 네?

유선생 / 맹세할 수 있습니까?

석 규 / (어이없다는 듯 웃으며) 아이.. 참.. 이상하시네요.. 유선생님

유선생 / ... (의심의 눈길 계속)

석 규 / 할 수 있습니다. 맹세..

유선생 / 뭘 걸구요?

석 규 / 네?

유선생 / 뭘 걸구 맹세하실 겁니까?

석 규 / 하하.. 참. 나..

유선생 / ... (의심의 눈길 계속)

석 규 / 우리 엄마 걸고 맹세할게요. 엄마.. 됐습니까?

그런 석규를 쳐다보고 있는 은숙.

S#90

90-1

저녁. 석규 집에 가는길. 버스정류장. 낮의 일 때문에 기분이 별로 안좋은듯 하다.
이때 대학생 째름으로 보이는 남자, 다가온다.

남 자 / 저.. 지금 몇시예요?

석 규 / 6시 반이요

남 자 / 예.. 저..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온 연세대학교 학생인데요...제가 지갑을 잃어버려서요..

석 규 / ... (짜증난다)

남 자 / 차비 좀 빌려주시면, 서울가서 제가 부쳐드리면 안될까요?

석 규 / (귀찮다. 주머니에서 돈을 찾으며) 얼마요?

남 자 / 한 2만원만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석 규 / 네? 어휴.. 그렇게는 없는데..

남 자 / 그럼 만원이라도...

석 규 / 내가 지금 천원짜리 밖에 없거든요? 진짜.. 천원만 드릴게요..

석규,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는데.. 이런 만원짜리가 나온다. 화들짝 놀라 주먹을 쥐는 손.
남자, 석규를 쳐다본다. 공연히 뭔가 잘못된 것 같은 석규..

인적없는 좁은 골목. 남자와 석규, 둘 뿐이다. 남자는 석규의 기에 눌러 벽에 기대 서있다. 적의가 느껴지는 표정.. 남자의 뒷통수를 연달아 후려치는 석규.

석 규 / 어이.. 존만이! 뭐? 연세대? 학생증 꺼내봐! 어이! 연세대 존만이!!
 학생증 꺼내 보라고!!
 남 자 / ... (뭘 꺼내려고 하자)
 석 규 / (다시 한대 후려치며) 하.. 이게 끝까지 사기칠라 그러네..
 오늘 얼마 벌었어? 엉? 돈 많이 벌었냐?
 남 자 / (대답없이 석규를 노려보기만 하는 남자)
 석 규 / 하! 진짜 오늘 아주 드러운 날이네..
 남 자 / (계속 대답없이 석규를 노려본다)
 석 규 / 너.. 씨발.. 유씨지? 엉? 너 유씨지? 아니야? 뭐가 아니야? 이 씨발유씨야!!

때린데를 계속 때리는 석규. 완전 강패다!! 공연한 분풀이.

순간.. 갑자기 석규의 따귀를 후려치고 달아나는 남자.
 순식간에 일격을 당한 석규, 얼굴을 부여잡고 끄끙댄다. 황당~

S#91

다음날. 단체사무실 건물 뒷편 주차장. 유선생, 차를 파킹하고 있다.
 이때 주차장으로 들어오는 갤로퍼.
 유선생의 정반대편에 주차한다. 갤로퍼의 운전자는 하필, 석규다. 석규 얼굴의 상처..
 두 사람이 서로 마주보며 주차하는 모양새다.

S#92

단체 사무실. 문열고 들어오는 유선생. 뒤이어 따라 들어오는 석규.
 석규가 등장하자 명희, 기다렸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난다. 다른 회원들도 걱정되는 얼굴로 석규를 주목한다.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다.

석 규 / ? (상황파악이 안되지만 뭔가 이상한 느낌..)
 유선생 / ? (유선생 역시 마찬가지다)
 명 희 / 박선생님.. 이거.. (석규의 핸드폰을 내보이며)
 석 규 / ?
 명 희 / 의정부. 댁에서 전화 계속 왔었는데요..
 석 규 / ?
 명 희 / 어머니... 돌아가셨다고...
 석 규 / 네?

쿵! 사색이 되는 석규. 나란히 서있던 유선생, 덩달아 어리둥절하다.
 미동조차 없는 석규와 유선생. 깊은 침묵속에 어찌할 줄 모르는 시선들만 가득하다..

S#93

93-1

밤. 고속도로 휴게소. 승용차 안. 잠들어 있는 은숙과 명희. 사이좋은 자매같다.

93-2

휴게소 화장실 안. 유선생, 문교수, 안교수가 나란히 오줌을 누고있다. 모두 검은색 정장 차림이다. 그 중 유선생은 오줌을 누며 유심히 벽에 붙은 무언가를 보고있다.

'깨끗한 화장실 만들기' 캠페인 만화 스티커다.
석규가 그린거 맞다

S#94

94-1

의정부. 병원 장례식장. 대체로 썰렁한 가운데, 술상이 벌어진 서너 테이블.
석규, 상복과 상모를 착용한 채 영정사진 옆에서 문상객을 맞이위해 서있다. 그러나 문상객은 없다.

석호는 술좌석에서 사람들과 킬킬대며 떠들고 있다. 대충 보아도 이미 많이 취해있다.

94-2

시간경과. 문상객과 맞절을 나누는 석규. 절을 마치고 일어나면, 문상객은 다름아닌 썩 14의 양아치다. (석호와 동업하는 카오디오 사기꾼). 정장을 차려입어도 여전히 풍기는 양아치 냄새..

이때, 출입구 쪽으로 시선이 쏠린다.
핫! 푸른심천 21 회원들이다!!

S#95

95-1

장례식장 한쪽 구석. 석규, 조카 용희를 불러 조용히 얘기한다.

석 규 / 야! 너 아빠 어디갔냐?
용 희 / 자..
석 규 / 어디서?
용 희 / 조오기~

용희의 시선을 따라가보면, 석호, 한쪽 구석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있다. 그나마 다행이다.

95-2

시간경과. 푸른심천 21 회원들의 술상. 차려진 음식을 먹으며, 조용조용 얘기하는 사람들. 가끔 술잔을 돌리기도 하고..
유독, 유선생은 누군가를 찾는듯 주위를 살핀다. 이윽고 그의 눈에 석호가 들어온다.

S#96

96-1

밤. 장례식장 밖. 이제 가려고 밖으로 나와있는 안교수와 문교수. 다른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다.

안교수 / 아니.. 다들 어디갔어. 가야지 이제..

96-2

장례식장 내실 안. 석규와 명희 둘뿐이다.

석규, 담배를 피우고 있다. 명희, 안쓰러운 눈으로 바라본다. 그러다가 석규의 담배를 은근슬쩍 뺏는다.

석규, 쳐다보면

괜히 지가 울컥해서 울먹이며, 석규에게 쓰옥 다가온다.

명 희 / 슬퍼도 담배 자주 피우지 마세요. 어머님도 안좋아 하실 거예요.

아까 어머님께 약속했어요. 이젠 제가 옆에 있어드린다고.

걱정말고 가시라고...

석 규 / ...

명 희 / 그런다고 하셨어요

키스하는 명희. 얼굴에 키스당하는 석규.

96-3

다시 장례식장 밖. 안교수와 문교수, 아직도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다. 아까와는 다른 포즈.

96-4

복도 화장실 앞. 헉! 석호와 은숙, 마주하고 서있다. 초긴장 상태다..

어쩔줄 모르는 은숙. 이상한 감회에 젖은 석호. 둘다 말은 없지만 분위기 장난 아니게 묘하다. 그런 상태가 한동안 계속... 되다가,

은숙, 인사를 하는중 마는중 하고는 도망치듯 뒤돌아 간다.

그 뒤로 석호의 목소리

“결혼은 하구 사냐?...”

그걸 다 보고있는 유선생. 하늘이 무너진다.

S#97

심천으로 돌아가는 길. 운전중인 유선생, 생각이 많은 얼굴이다.

뒷자리의 은숙. 역시 머리가 복잡한 듯.. 그 옆에 행복한 얼굴로 자는 명희. 코고는 소리..

S#98

98-1

아침. 유선생네 초등학교 운동장. 원경
조기축구회 사람들이 방학을 틈타 축구시합을 하고있다.

정문으로 들어서는 유선생의 흰색 캐피탈.
축구하는 사람들을 아랑곳하지 않고 운동장을 가로지르는 유선생의 차.

축구를 멈춘 사람들, 모래바람을 일으키며 지나가는 유선생의 차를 기분나쁘게 쳐다본다.

S#99

유선생네 초등학교. 유선생, 교실 문을 '드르륵' 열고 들어온다. 방학이라 텅 비어있다.
반기는 건 칠판 낙서뿐..

< 칠성수영장 박석규 .양아치. 최은숙? 최은순? >



썸 85에서 자기가 했던 낙서다.

S#100

밤 1시경. 단체 사무실 앞 도로. 길거리엔 주차된 차 몇대외에 아무도 없다.
멀리서 김PD의 차 들어와 길가에 세워논 은숙의 볼보옆에 선다. 이윽고 은숙 내린다.
은숙, 인사하면, 출발하는 김PD의 차.

은숙은 자신의 볼보 문을 열려한다. 이때!
반대편에 세워져 있던 하얀 캐피탈, 갑자기 빠른 속도로 후진한다.
중앙선을 넘어 은숙의 볼보를 가로막는 캐피탈.
긴장하는 은숙. 이윽고 캐피탈의 운전자 내린다.

“뉴 페이스네요?”

허걱! 유선생이다. 술을 좀 마신듯

은 숙 / 어머!
유선생 / 박선생은 위에 있던데, 저냥반은 또 누굽니까?
은 숙 / ...
유선생 / ...
은 숙 / ...
유선생 / ...

은 숙 / (결심한 듯) 결혼 할 사람이에요.
유선생 / ?
은 숙 / ...
유선생 / 오!.. 결혼!.. 결혼 할 사람, 누구데요?
은 숙 / 뭐하시는 건데요? 지금?
유선생 / 석규는 아니고... 석규 형인가? 그 캄패새끼?

헉! 심장이 멎을것 같은 은숙. 대꾸조차 못한다.
2층 환경연합 사무실의 불이 꺼진다. 주위가 눈에 띄게 어두워진다. 한참 후

유선생 / (돌연, 진지모드) 농담입니다. 전 그런 것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루요..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다시 돌아와 줘요. 은숙씨
은 숙 / (이내 정신을 차리고, '피식' 어이없다는 투로) 무슨 말이에요? 술 드셨어요?
유선생 / 술은 술이고, 과건 과겁니다!
은 숙 / 참.. 나...
유선생 / 돌아와 줘요.. 은숙씨.. 다 용서할께요..
은 숙 / 뭘 용서해요? 네?
유선생 / (버럭) 더 이상 미치게 하지 말란 말입니다!!

은숙, 갑작스런 고향에 놀란다. 잠시 후.. 은숙, '헉' 뒤돌아 가며

은 숙 /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유선생님. 이러는것도 지저워요. 이젠

유선생, 은숙을 쫓아가 냅다 잡아챈다. 이어지는 몸싸움. 양보없이 격렬하다.

이때, 건물 계단을 내려오던 석규. 그 광경을 본다.
후다닥 뛰어내려와 뜯어말리는 석규. 한참을 옥신각신 하다가 급기야 힘으로 제압하는 석규.
유선생, 완전히 돈다.

유선생 / 오! 석규~
석 규 / 무슨 일입니까?
유선생 / 무슨 일입니까?
석 규 / 왜 이러세요?
유선생 / 왜 이러세요? (비꼬는 말투로 계속 따라한다)
석 규 / ...
유선생 / ...
석 규 / ...
유선생 / (싸늘하게) 박석규!.. 장례는 잘 치루고 왔냐?
석 규 / ...
유선생 / 함부로 어머니 걸고 맹세하는거 아니다. 캄패새끼들 키우느라 고생도 많았을텐데...
석 규 / 이것 봐요!
유선생 / 그래.. 너 가져라. 가져.. 니가 갖던지 너 형이 갖던지...
석 규 / ...
유선생 / 돌이 돌려서 쳐먹던지... 그대신..
석 규 / ...
유선생 / 니네.. 이 씨부랄 년놈들.. 내일부터 얼굴 못들구 다닐줄 알아! 내가 못할거 같지? 엉?

온갖 저주를 퍼부으며, 도로변에 세워놓은 차로 들어가는 유선생.

석 규 / 지금 무슨 운전을 한다고 그러니까?
 유선생 / 지랄하고 있네.. 양아치새끼..
 석 규 / 알았어요. 잠깐만요
 유선생 / ...
 석 규 / 유선생님. 잠깐만요.
 유선생 / ...
 석 규 / (단호하게)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겠습니다.
 유선생 / ...
 석 규 / ...
 유선생 / ...
 석 규 / 예를 들어서..
 유선생 / 단도직입적이래매 뭐 예를 들고 지랄이야?
 석 규 / 이것봐요. 유선생님!
 유선생 / 유선생. 유선생 부르지마. 새끼야!
 니들이 아는 유경목은 죽었어. 나 시체거든. 시체한테 값싼 동정 바라지마.

부웅~. 무서운 속도로 출발하는 자동차. 쫓 된 얼굴로 남은 석규와 은숙. 죽고싶은 심정이다.
 멀어지는 유선생의 차를 허망하게 바라보는 두사람.

유선생의 차, 무서운 속도로 멀어져간다. 한 200미터 질주했을까? 순간 사거리 오른쪽에서 튀어나오는 육중한 덤프트럭. 충돌!! 굉음과 함께 밀에 깔려 아작나는 유선생의 차. 눈깜짝 할 사이의 대형 사고.
 아! 죽었겠다..

순식간에 벌어진 사고를 고스란히 목격한 두사람. 얼어붙은 듯, 서있다.

S#101

101-1

장례식장. 유선생의 영정사진.. 그다지 많지 않은 문상객들 속에서 유선생네 반.아이들 30여명이 눈에 띈다. 초등학교 2.3학년 정도 아이들이라 울 법도 한데 우는아이 하나 없이 무심해 보인다. 상복을 입은 유선생의 와이프와 딸내미 보인다.
 한쪽 구석에 마련된 술자리. 은숙, 석규, 명희등을 포함한 단체회원들이 술을 마시고 있다. 또한번의 장례식.. '이 무슨 운명의 장난이란 말인가..'
 다들 침통한 분위기다.

101-2

시간경과. 장례식장 복도. 여자화장실 앞. 석규, 담배를 태우며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다. 이윽고, 화장실에서 나오는 은숙.

석 규 / 괜찮으세요?
 은 숙 / 네..
 석 규 / 나가서 따로 한잔 하시겠습니까?
 은 숙 / ...
 석 규 / ...
 은 숙 / ... 저희 집으로 가요..

장례식장, 건물 현관문을 막 나서는 두사람. 이때

“박선생님!”

석규, 뒤돌아 보면 주홍이다. (유선생의 친구)

석 규 / 아.. 예
주 홍 / 오셨습니까?
석 규 / 예..

주홍, 석규 옆에 서있는 은숙에게 눈길을 돌린다. 목례하는 주홍

은 숙 / (목례로 답한다..)
주 홍 / (다시 한번 목례로 답하고는, 얼굴을 빤히 쳐다본다)
석 규 / 저.. 그럼..

서둘러 자리를 뜨는 석규. 뒤따르는 은숙.
주홍, 가만히 서서 두사람의 뒷모습을 바라본다. 왠지 부자연스럽다고 생각한다.

주홍 너머로, 두사람을 따라 나온 명희 보인다. 명희 역시 두사람의 뒷모습을 바라본다.

S#102

은숙의 집. 변기 물 내려가는 소리 들린다. 잠시후 화장실에서 나오는 석규.

거실에 술상을 벌인 두사람.
별 말 없이 어색한 분위기.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석규, 서서히 고개를 들어 은숙을 쳐다본다.

석 규 / 건배 한번 할래요?
은 숙 / ...
석 규 / ...
은 숙 / ...
석 규 / 자요! (잔을 들고)
은 숙 / 사람이 죽었는데 건배가 나와요?

허걱!
석규, 잔을 마셔야될지 내려놔야 될지 모르는 이 어색함..

은 숙 / 다시 올라가요
 석 규 / ...
 은 숙 / 올라가서 만화 그리고 먹고살아요. 우린 만나면 안돼
 석 규 / 왜요?
 은 숙 / 우리가 지금 몇 명 죽인지 알아요?
 석 규 / 그게 우리가 죽인거야?
 은 숙 /
 석 규 / ...
 은 숙 / ...
 석 규 / ...
 은 숙 / 하여간 올라가요. 올라가서 조용히 살어
 석 규 / 안그래도 그럴겁니다
 은 숙 / 내가 남쪽. 그쪽이 북쪽 말어요. 절대 왔다갔다 하지말고
 석 규 / ...
 은 숙 / 알았어요?
 석 규 / ...
 은 숙 / 알았나구!
 석 규 / 통일되면 어떡해요?
 은 숙 / ...
 석 규 / ...
 은 숙 / 에이씨.. 통일되면...
 석 규 / ...
 은 숙 / 동서로 갈러. 내가 동쪽. 니가 서쪽
 석 규 / ...
 은 숙 / ...
 석 규 / ...
 은 숙 / 휴~ 한잔해요

은숙, 잔을 든다.

은 숙 / 잘 살어.. 나도 잘 살께
 석 규 / ...
 은 숙 / 그리고..
 석 규 / ...
 은 숙 / 불쌍한 영혼들을 위하여..

기꺼이 동의하는 석규. 잔을 들어 건배하려는데..
 이때 은숙의 핸드폰벨 울린다. 건배는 잠시 미룬다.

102-3

주방. 은숙이 전화를 받고있다. 김PD다. 김PD는 목소리만..

김 PD / 은숙씨..
 은 숙 / ?...
 김 PD / 저 오늘 이혼했어요.
 은 숙 / 네?
 김 PD / 이혼 했습니다. 저
 은 숙 / 영호씨..
 김 PD / ...
 은 숙 / 괜찮아요?
 김 PD / 네..

은 숙 / ...
김 PD / 이제 일본가요. 우리.. 이게 다 일본 때문에 이렇게 된거잖아요..
은 숙 / 영호씨!...
김 PD / ...
은 숙 / .. 사랑해요...
김 PD / 저두요... 저 지금 엘리베이터 앞이에요. 금방 올라갈게요
은 숙 / (화들짝) 네?

옴마나?? 이 일을 워쩐다??

S # 103

103-1

같은시간. 은숙의 아파트 1층, 엘리베이터 앞.
김PD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다.
이때 엘리베이터로 걸어와 김PD 옆에 서는 여자. 오마이갓!! 명희다. 명희는 슬이 꽤 된듯 하다.
이윽고 엘리베이터 문 열리고 두사람 함께 탄다.

103-2

엘리베이터 안. 서로 모르는 두사람.
취해서 흐트러진 명희를 음흉하게 훑쳐보는 김PD.
중심을 못잡고 흔들리는 그녀의 하체는 그래서인지 오늘따라 더더욱 죽인다.
그의 집요한 관찰은 1층에서 8층까지 계속된다

S # 104

104-1

은숙의 거실에 등그라니 모여앉은 네사람. 어쩌다 이리 되었을까..
말 없이 무지하게 썰렁한 분위기. 명희는 취해서 건디기 힘들어 보인다. 침묵속에 떠도는 시선들.

104-2

이어지는 침묵. 그러다가 긴 침묵을 깨는 김PD의 한마디

김 PD / (은숙을 슬쩍 보며) 저희 곧 결혼합니다. 축하해 주세요
석 규 / 아.. 축하드립니다.
김 PD / 감사합니다.
석 규 / ...
은 숙 / ...
명 희 / (석규를 슬쩍 보며, 꼬부라진 말투로) 저희도 결혼할 사이예요. 축하해 주세요

뜨헉! --;;

김 PD / 아.. 그러시구나. 축하드립니다.

명 회 / 네. 감사합니다 (딸꾹)
석 규 / ...
은 숙 / ...

속수무책인 석규

104-3

화장실. 쉬 하고 있는 명희. 얼굴이 완전 맛탱이가 갔다.
밖에서는 분위기가 많이 좋아진 모양. 웃음소리가 간간히 들린다.

104-4

거실. 어쨌거나 많이 좋아진 분위기. 킥킥 웃음과 함께 술잔이 몇번 돌고. 주거나 받거나 분위기
거침없이 좋아지려는데.

이때! 난데없는 명희의 긴급제안!

명 회 / 근데 우리.. 너무 비인간적인거 아니요? 유선생님한테 우리가 어떻게 이럴수 있어요?
모두들 / ...
명 회 / 우리 유선생님을 위해 기도해요
모두들 / ...
명 회 / 네? 자요 (양 옆사람의 손을 잡는다)

사람들 어쩔줄 모르며 망설인다.. 웃어야할지 울어야할지 모르는 이 어색한 분위기..

104-5

잠시후.
손에 손을 맞잡은 네사람. 위에서 보면 커다란 원을 그리고 있다.
코메디다.

그 위로 유선생을 위한 명희의 기도가 방안에 가득찬다. 술 기운이 섞여 떠들떠들, 중언부언이지만
그녀로선 매우 진지한 기도다. 기도, 계속되고 어느새 명희, 감정이 북받쳐 올라 울먹인다.
울음반, 기도반 계속 되다가 사람들 기회를 봐 서둘러 “아멘” 하지만, 또다시 이어지는 기도.

드디어 기도가 끝난다. 모두가 서둘러 “아~멘” .
기도가 끝나자, 사람들 너도나도 명희를 위로하는데,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찬송가를 부르기 시작하
는 명희.
얼떨결에 또 따라부르는 사람들..

그들의 찬송가, 우스꽝스럽게 계속되다가.. 순간 암전. 어느덧 찬송가를 번주한 재치만점의 메인 테
마송 흐르기 시작한다.
엔드크래딧 올라온다.

<끝>